공공데이터 오픈 API 확대 및 포털 고도화



Open API 활용가이드

**개정 이력**

|  |  |  |  |  |  |
| --- | --- | --- | --- | --- | --- |
| **버전** | **변경일** | **변경 사유** | **변경 내용** | **작성자** | **승인** |
| 1.0 | 2020-08-13 | 최초작성 | 최초작성 | 이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 차

[1. 서비스 명세 4](#_Toc530560935)

[**1.1 부산명소정보 서비스** 4](#_Toc530560936)

[가. API 서비스 개요 4](#_Toc530560937)

[나. 상세기능 목록 5](#_Toc530560938)

[다. 상세기능내역 5](#_Toc530560939)

[1) [부산명소 국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5](#_Toc530560940)

[2) [부산명소 영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26](#_Toc530560940)

[3) [부산명소 일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49](#_Toc530560940)

[4) [부산명소 중문 간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70](#_Toc530560940)

[5) [부산명소 중문 번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89](#_Toc530560940)

[2. OpenAPI 에러 코드정리 108](#_Toc530560941)

**1. 서비스 명세**

**1.1 부산명소정보 서비스**

가. API 서비스 개요

|  |  |  |  |  |
| --- | --- | --- | --- | --- |
| **API 서비스 정보** | **API명(영문)** | AttractionService | | |
| **API명(국문)** | 부산명소정보 서비스 | | |
| **API 설명** | 부산관광명소의 이름,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좌표, 상세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 | | |
| **API 서비스**  **보안적용**  **기술 수준** | **서비스 인증/권한** | [O] ServiceKey [ ] 인증서 (GPKI/NPKI)  [ ] Basic (ID/PW) [ ] 없음 | | |
| **메시지 레벨**  **암호화** | [ ] 전자서명 [ ] 암호화 [O] 없음 | | |
| **전송 레벨 암호화** | [ ] SSL [O] 없음 | | |
| **인터페이스 표준** | [ ] SOAP 1.2  (RPC-Encoded, Document Literal, Document Literal Wrapped)  [O] REST (GET)  [ ] RSS 1.0 [ ] RSS 2.0 [ ] Atom 1.0 [ ] 기타 | | |
| **교환 데이터 표준**  **(중복선택가능)** | [O] XML [O] JSON [ ] MIME [ ] MTOM | | |
| **API 서비스**  **배포정보** | **서비스 URL**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 | | |
| **서비스 명세 URL**  **(WSDL 또는 WADL)**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_wadl&type=xml | | |
| **서비스 버전** | 1.0 | | |
| **서비스 시작일** | 2020-08-13 | **서비스 배포일** | 2020-08-13 |
| **서비스 이력** | 2020-08-13: 서비스 시작 | | |
| **메시지 교환유형** | [O] Request-Response [ ] Publish-Subscribe  [ ] Fire-and-Forgot [ ] Notification | | |
| **서비스 제공자** | 이재경 / 부산시 관광진흥과 / 051-888-5204 / bsjklee@korea.kr | | |
| **데이터 갱신주기** | 년 1회 | | |

나. 상세기능 목록

|  |  |  |  |
| --- | --- | --- | --- |
| **번호** | **API명(국문)** | **상세기능명(영문)** | **상세기능명(국문)** |
| 1 | 부산명소정보 서비스 | getAttractionKr | 부산명소 국문 정보 |
| 2 | 부산명소정보 서비스 | getAttractionEn | 부산명소 영문 정보 |
| 3 | 부산명소정보 서비스 | getAttractionJa | 부산명소 일문 정보 |
| 4 | 부산명소정보 서비스 | getAttractionZhs | 부산명소 중문 간체 정보 |
| 5 | 부산명소정보 서비스 | getAttractionZht | 부산명소 중문 번체 정보 |

다. 상세기능내역

1) [부산명소 국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1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명소 국문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명소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국문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getAttractionKr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107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255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흰여울문화마을 | 콘텐츠명 |
| GUGUN\_NM | 구군 | 100 | 0 | 영도구 | 구군 |
| LAT | 위도 | 20 | 0 | 35.0788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4402 | 경도 |
| PLACE | 여행지 | 300 | 0 | 흰여울문화마을 | 여행지 |
| TITLE | 제목 | 300 | 0 | 가파른 절벽 끝에 흰여울문화마을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흰여울길에서 만난 느림의 미학 | 부제목 |
| ADDR1 | 주소 | 200 | 0 | 부산광역시 영도구 흰여울길 | 주소 |
| CNTCT\_TEL | 연락처 | 200 | 0 | 051-419-4067 | 연락처 |
| HOMEPAGE\_URL | 홈페이지 | 200 | 0 | http://huinnyeoul.co.kr | 홈페이지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6번 출구 → 7, 71, 508 버스 환승 → 영선동 백련사 하차  버스 7,71,508 영선동 백련사 하차  부산시티투어버스 부산역(점보버스) → 흰여울문화마을 하차  주차 절영해안산책로 입구 공영 주차장 (유료) | 교통정보 |
| USAGE\_DAY | 운영일 | 500 | 0 |  | 운영일 |
| HLDY\_INFO | 휴무일 | 500 | 0 |  | 휴무일 |
| USAGE\_DAY\_WEEK\_AND\_TIME | 운영 및 시간 | 500 | 0 |  | 운영 및 시간 |
| USAGE\_AMOUNT | 이용요금 | 500 | 0 | 무료 | 이용요금 |
| MIDDLE\_SIZE\_RM1 | 편의시설 | 500 | 0 | 점보버스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운행, 요금 할인 50%, 장애인 주차장(절영해안산책로 공영주차장, 유료) | 편의시설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절영해안산책로 가파른 담벼락 위로 독특한 마을 풍경이 보인다. 해안가 절벽 끝에 바다를 따라 난 좁은 골목길 안쪽으로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피난민들의 애잔한 삶이 시작된 곳이자 현재는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을공동체 흰여울문화마을이 자리한 곳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흰여울길은 봉래산 기슭에서 굽이쳐 내리는 물줄기가 마치 흰 눈이 내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2011년 12월, 낡은 가옥을 리모델링하면서 현재는 영도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났다.  영화 &lt;변호인&gt;을 보지 못한 사람도 그 영화의 명대사는 외울 것이다. 진우네 집 담벼락에 크게 쓰여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여행자의 영도 여행 인증샷 1호는 언제나 진우네 담벼락이었다. 그 담벼락이 있는 곳이 바로 흰여울문화마을의 시작점, 마을안내소이다. 흰여울길은 모두 14개의 골목길로 이어져 있고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카페와 공방, 독립서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느릿느릿 걷는 골목마다 바다 풍경이 들어오고 돌 틈 사이 피어있는 이름 모를 초록들이 일상에 여유를 더한다. 흰여울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중 하나는 단연 흰여울점빵. 눈앞에 망망대해를 마주하고 후후 불며 먹는 라면이 세상 맛있는 곳. 발품 팔아 고단한 마음에 한줄기 평화가 스민다. 길의 끝은 또다시 절영해안산책로와 이어지고 절벽과 땅 아래를 힘차게 오르내리는 여행자들과 만난다.  마을 담장을 따라 걷는 흰여울길은 현재의 절영로가 생기기 전까지 태종대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파도 소리 벗 삼아 오며 가는 길에 시선은 항상 바다에 머문다. 크고 작은 배들이 점점이 떠 있는 모습이 이국적이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들이 닻을 내리고 잠시 머무는 곳, 묘박지의 풍경이다. 영도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풍경이기도 하다.  바다를 접한 가파른 절벽이라 사람이 살수 없던 곳에 마을공동체의 노력으로 예술이 스며들었다, 흰여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영도 앞바다가 경이롭다.  지금, 여기, 우리  흰여울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getAttractionKr?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xml version="1.0" encoding="UTF-8"?><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흰여울문화마을</MAIN\_TITLE>  <LNG>129.04402</LNG>  <MIDDLE\_SIZE\_RM1>점보버스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운행, 요금 할인 50%, 장애인 주차장(절영해안산책로 공영주차장, 유료)</MIDDLE\_SIZE\_RM1>  <UC\_SEQ>255</UC\_SEQ>  <USAGE\_AMOUNT>무료</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6번 출구 → 7, 71, 508 버스 환승 → 영선동 백련사 하차  버스 7,71,508 영선동 백련사 하차  부산시티투어버스 부산역(점보버스) → 흰여울문화마을 하차  주차 절영해안산책로 입구 공영 주차장 (유료)</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절영해안산책로 가파른 담벼락 위로 독특한 마을 풍경이 보인다. 해안가 절벽 끝에 바다를 따라 난 좁은 골목길 안쪽으로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피난민들의 애잔한 삶이 시작된 곳이자 현재는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마을공동체 흰여울문화마을이 자리한 곳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흰여울길은 봉래산 기슭에서 굽이쳐 내리는 물줄기가 마치 흰 눈이 내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이름 지어졌다. 2011년 12월, 낡은 가옥을 리모델링하면서 현재는 영도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인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났다.  영화 &lt;변호인&gt;을 보지 못한 사람도 그 영화의 명대사는 외울 것이다. 진우네 집 담벼락에 크게 쓰여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여행자의 영도 여행 인증샷 1호는 언제나 진우네 담벼락이었다. 그 담벼락이 있는 곳이 바로 흰여울문화마을의 시작점, 마을안내소이다. 흰여울길은 모두 14개의 골목길로 이어져 있고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카페와 공방, 독립서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느릿느릿 걷는 골목마다 바다 풍경이 들어오고 돌 틈 사이 피어있는 이름 모를 초록들이 일상에 여유를 더한다. 흰여울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중 하나는 단연 흰여울점빵. 눈앞에 망망대해를 마주하고 후후 불며 먹는 라면이 세상 맛있는 곳. 발품 팔아 고단한 마음에 한줄기 평화가 스민다. 길의 끝은 또다시 절영해안산책로와 이어지고 절벽과 땅 아래를 힘차게 오르내리는 여행자들과 만난다.  마을 담장을 따라 걷는 흰여울길은 현재의 절영로가 생기기 전까지 태종대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파도 소리 벗 삼아 오며 가는 길에 시선은 항상 바다에 머문다. 크고 작은 배들이 점점이 떠 있는 모습이 이국적이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들이 닻을 내리고 잠시 머무는 곳, 묘박지의 풍경이다. 영도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풍경이기도 하다.  바다를 접한 가파른 절벽이라 사람이 살수 없던 곳에 마을공동체의 노력으로 예술이 스며들었다, 흰여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영도 앞바다가 경이롭다.  지금, 여기, 우리  흰여울  </ITEMCNTNTS>  <PLACE>흰여울문화마을</PLACE>  <SUBTITLE>흰여울길에서 만난 느림의 미학</SUBTITLE>  <USAGE\_DAY/>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영도구</GUGUN\_NM>  <ADDR1>부산광역시 영도구 흰여울길</ADDR1>  <HOMEPAGE\_URL>http://huinnyeoul.co.kr</HOMEPAGE\_URL>  <TITLE>가파른 절벽 끝에 흰여울문화마을</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85</LAT>  </item>  <item>  <MAIN\_TITLE>깡깡이 예술마을</MAIN\_TITLE>  <LNG>129.03255</LNG>  <MIDDLE\_SIZE\_RM1>휠체어 접근 가능</MIDDLE\_SIZE\_RM1>  <UC\_SEQ>256</UC\_SEQ>  <USAGE\_AMOUNT>프로그램별 상이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120900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6번출구) 도보 18분  마을버스 영도구2 대평동 하차  주차 봉래동, 남항시장 공영주차장 (유료)</TRFC\_INFO>  <HLDY\_INFO>매주 월요일 (투어 등 시설)</HLDY\_INFO>  <ITEMCNTNTS>영도다리 건너 자갈치시장 맞은 편 물양장에 배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세상에 못 고치는 배는 없다는 전설적인 수리조선의 메카 깡깡이 예술마을이 있는 곳이다. 깡깡이란 말은 수리 조선소에서 배 표면에 녹이 슬어 너덜해진 페인트나 조개껍데기를 망치로 두드려 벗겨낼 때 깡깡 소리가 난다 하여 생겨난 말이다. 마을 전체에 깡깡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던 그 시절부터 대평동은 그렇게 깡깡이 예술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이런 깡깡이 예술마을의 유래 때문인지 깡깡 소리를 내는 일꾼이 남성 기술자인 줄 알지만 전혀 아니다.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오랜 세월 그 힘든 깡깡이질을 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대평동 깡깡이 아지매들이다.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난청과 이명을 이겨가며 묵묵히 조선소를 지킨 철의 여인들이다.  조선소라고 해서 바다 냄새만 날 것 같고 깡깡 거리는 소리만 들릴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깡깡이 예술마을은 마을 이름이 ‘예술마을’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그 특색이 분명하다. 조선소의 기계 소리와 높이를 모르던 기계들이 즐비한 마을에, 몇 해 전부터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깡깡이 예술마을 조성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을 곳곳에 공공예술품을 설치하였으며 마을공작소, 생활문화센터, 마을투어, 유람선 체험, 선박 체험관 등의 시설을 통해 마을을 찾아주는 사람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통합투어를 신청하면 마을해설사와 함께 생생한 골목길 투어를 즐길 수 있고 더불어 유람선 해상투어도 가능하다. 골목길을 접어 들 때마다 어떤 예술가의 작품이 있을지 찾아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마을 박물관에는 100여 년간의 축적된 수리 조선업에 관련된 이야기와 주민 생활상 등이 영상, 유물, 글, 예술작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부산’ 하면 해운대, 광안리도 있지만 부산원도심 스토리투어가 있는 영도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고 그중 깡깡이예술마을과 같은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마을도 있다. 부산 근대 문화의 현재진행형, 깡깡이예술마을의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해 보자.  </ITEMCNTNTS>  <PLACE>깡깡이 예술마을</PLACE>  <SUBTITLE>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곳</SUBTITLE>  <USAGE\_DAY/>  <USAGE\_DAY\_WEEK\_AND\_TIME>평일, 주말 10:00~17:00  가급적 평일 낮 시간 제외, 주말 혹은 통합투어 프로그램 이용 요망</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영도구</GUGUN\_NM>  <ADDR1>부산광역시 영도구</ADDR1>  <HOMEPAGE\_URL>http://kangkangee.com</HOMEPAGE\_URL>  <TITLE>역사가 살아 숨 쉬는 깡깡이예술마을</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1209005\_thumbL</MAIN\_IMG\_THUMB>  <LAT>35.092648</LAT>  </item>  <item>  <MAIN\_TITLE>국립해양박물관</MAIN\_TITLE>  <LNG>129.08018</LNG>  <MIDDLE\_SIZE\_RM1>물품보관소(1, 2층), 휠체어 무료대여, 점자 블록, 점자안내판, 안내견 동반출입,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4D영상관 내 휠체어석</MIDDLE\_SIZE\_RM1>  <UC\_SEQ>257</UC\_SEQ>  <USAGE\_AMOUNT>관람료 무료(단, 4D영상관, 유료특별전시 제외)</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562750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1호선 남포역 6번 출구 → 186, 66번 버스 환승 → 국립해양박물관 하차  부산시티투어버스 부산역(점보버스) → 국립해양박물관 하차  주차 국립해양박물관 주차장 (유료)</TRFC\_INFO>  <HLDY\_INFO>매주 월요일</HLDY\_INFO>  <ITEMCNTNTS>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부산이라고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해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상의 모든 바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국립해양박물관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바다로 안내한다.  부산 앞 바다를 배경으로 웅장한 외관을 자랑하는 건물이 눈에 띈다. 물방울이 튀어 오르는 모양을 형상화한 외관은 마치 은하계를 가로지르는 우주선 같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바다의 문화, 역사, 과학 그리고 고고학에 이르는 전문적인 자료를 전시하고, 수준 높은 해양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해양박물관이다.  상설전시관이 있는 3층부터 탐방을 시작해보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사로잡는 대형 수족관. 커다란 바다거북이 머리 위로 유유자적하는 모습은 아이들을 수족관 앞으로 모여들게 하는 마술사 같다. 수족관 바로 옆에는 우리 선조들의 해양기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항해선박, 바다를 향한 두려움 없는 도전을 계속한 해양인, 바다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전통어로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이 있다. 실물크기와 비슷하게 복원한 조선통신사 목선 앞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할 만큼 인기 있는 포토존이다. 흥미로운 해양생물의 기원을 알아보려면 해양생물 전시관, 해양레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다면 해양체험관으로 가자. 바다와 친해질 수 있는 즐거운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상설전시관은 4층으로 계속 이어진다. 해양산업 전시는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역사와 바다의 생산력을 제시해주고, 심해탐사나 극지연구에 대한 전시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제 바다를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2층 어린이박물관으로 향할 차례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 스스로 조작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해양체험 공간이다. 부스 곳곳에서 재미있는 바다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피크닉룸이 따로 있어 도시락을 챙겨온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을 원한다면? 단연 국립해양박물관이다.  </ITEMCNTNTS>  <PLACE>국립해양박물관</PLACE>  <SUBTITLE>해양, 어디까지 알고 있니?</SUBTITLE>  <USAGE\_DAY/>  <USAGE\_DAY\_WEEK\_AND\_TIME>화 ~ 일  국립해양박물관  -평일 09:00~18:00  -토요일 [9월~4월] 09:00~19:00 / [5월~8월] 09:00~21:0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설날‧추석 익일, 어린이날, 광복절 09:00~21:00  해양도서관  - 09:00~18:00  - 휴관일: 박물관 휴관일 및 법정공휴일</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영도구</GUGUN\_NM>  <ADDR1>부산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ADDR1>  <HOMEPAGE\_URL>http://www.knmm.or.kr</HOMEPAGE\_URL>  <TITLE>해양 문화의 꽃 국립해양박물관</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5627506\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728</LAT>  </item>  <item>  <MAIN\_TITLE>태종대</MAIN\_TITLE>  <LNG>129.0878</LNG>  <MIDDLE\_SIZE\_RM1>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안내견 동반 가능, 다누비열차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운행, 휠체어 무료대여(정문 관광안내센터)</MIDDLE\_SIZE\_RM1>  <UC\_SEQ>258</UC\_SEQ>  <USAGE\_AMOUNT>무료 (다누비 열차 요금 별도)</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082996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7번 출구 → 66, 88, 101 버스 환승 → 태종대(태종대온천) 하차  버스 8, 30, 66, 88, 101, 186 태종대(태종대온천) 하차  주차 정문입구 주차장(버스전용), 제7주차장, 자유랜드 주차장 (유료)</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초록으로 우거진 싱그러운 숲길을 거닐며 푸른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 오랜 세월 파도에 깎여 각양각색의 신비를 가지게 된 바위해안이 그 수려함을 자랑하는 곳. 부산 영도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태종대의 이야기다. 태종대는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이곳의 경치에 반해 활쏘기를 즐기며 쉬어갔다 하여 유래된 이름이라 한다. 짙푸른 바다에 둘러싸인 기암괴석과 우거진 녹음이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태종대는 빠지지 않는 전국 여행코스 중 하나다.  방문객들은 대부분 다누비 열차를 이용한다. 귀여운 외관을 자랑하는 다누비 열차는 태종대 유원지 도로를 순환하는 교통수단이다. 정문 관광안내센터에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다누비 열차 매표소와 승강장이 있다.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다양하므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핀다. 출발 후에는 순환 도로 곳곳에 있는 정차지점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어 훨씬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나무가 만들어주는 자연터널을 여유롭게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태종대는 순환도로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문제없다.  태원자갈마당, 남항조망지를 지나 다누비 열차의 첫 번째 정차지점인 전망대 휴게소에 이른다. 열차를 탄 대부분의 방문객이 여기서 하차한다. 태종대를 여행하는 이에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망 포인트이자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지점이다. 전망대에서는 멀리 오륙도, 날씨가 좋을 때는 대마도까지 조망할 수 있다. 전망대 옆 계단 아래로는 1906년부터 1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불이 꺼진 적 없는 영도등대가 있다. 2004년 SEE&amp;SEA갤러리, 전망대, 자연사전시실, 카페 ‘푸른바다’ 등을 갖춘 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등대 아래 신선바위 위에는 바다로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어버린 아내가 망부석이 되어 슬픈 사연을 전한다.  태종대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포인트뿐만 아니라 해안 자갈마당과 이어지는 계단오솔길도 잘 조성되어 있다.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풍경에 여행자의 마음이 절로 설렌다. 도시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건만 이곳만큼은 세상의 때가 덜 닿은 듯하다.  </ITEMCNTNTS>  <PLACE>태종대 유원지</PLACE>  <SUBTITLE>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라면 더없이 좋은</SUBTITLE>  <USAGE\_DAY/>  <USAGE\_DAY\_WEEK\_AND\_TIME>하절기 3~10월(04:00~24:00) / 동절기 11~2월(05:00~24:00)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영도구</GUGUN\_NM>  <ADDR1>부산 영도구 전망로 24</ADDR1>  <HOMEPAGE\_URL>https://bit.ly/3fxRtzu</HOMEPAGE\_URL>  <TITLE>영도 등대와 함께한 100년 태종대</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0829962\_thumbL</MAIN\_IMG\_THUMB>  <LAT>35.052643</LAT>  </item>  <item>  <MAIN\_TITLE>죽성성당</MAIN\_TITLE>  <LNG>129.24864</LNG>  <MIDDLE\_SIZE\_RM1>휠체어 접근 가능</MIDDLE\_SIZE\_RM1>  <UC\_SEQ>259</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182993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버스 해운대온천사거리 정류장 급행 1003 버스 → 기장성당 하차 → 마을버스 6 환승 → 두호마을 하차  마을버스 기장군청 정류장 마을버스 6 → 두호마을 하차  주차 죽성성당 인근 주차장 (유료)</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동해바다의 에메랄드빛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장 앞바다는 이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 됐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드라이브하기 더없이 좋은 코스에 경치 좋은 낭만카페를 찾아 기장으로 오는 사람들. 이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곳, 기장의 죽성성당이다.  부산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한 죽성성당은 작은 어촌마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덕분인지 남다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어느 바닷가 마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바위 위로 부서지는 하얀 포말은 성당의 붉은 지붕과 대비되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다.  금방이라도 미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릴 것만 같지만, 이 공간은 2009년 SBS 드라마 ‘드림’을 촬영하기 위해 지어진 드라마 세트장이다. 오래 전 방영된 드라마는 잊혀졌지만 잘 만들어진 이 공간만큼은 기장을 찾는 여행객의 필수 코스라고 할 정도로 명소가 되었다.  죽성성당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은 마치 액자의 프레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포토존이다. 액자 속으로 들어간 푸른 바다와 하늘이 더없이 아름다운 배경을 만들어 준다.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좋고 사랑하는 이와 알콩달콩 영화를 찍어도 예뻐만 보인다. 성당을 둘러싼 주변 경치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 성당 옆 울퉁불퉁 기묘한 너럭바위는 탁 트인 바다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천혜의 장소다. 해운대나 광안리 해변의 모습과는 달리 작은 바닷가 마을의 한적한 정취를 느끼고 싶다면 이만한 곳도 없다. 성당 내부는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어서 운 좋게 전시일정과 겹친다면 뜻하지 않은 볼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성당에서 도보로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죽성리 해송도 특이한 풍경 중 하나다. 이 해송은 5그루의 나무가 모여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처럼 보이는 노거수로 수령은 약 250년∼300년으로 추정된다. 예로부터 동네 사람들이 풍어제를 지내던 곳으로, 서낭신을 모신 국수당이 있어 민속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아래로 축축 늘어진 노송 가지가 마치 여행자를 부르는 것만 같다.  죽성성당은 푸른 하늘, 끝없는 바다와 어우러져 한층 그 매력을 더한다. 시원한 바람과 철썩이는 파도소리가 상쾌한 기운을 만든다. 붉은 뾰족 지붕의 성당과 대자연의 만남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작은 낙원일지도 모른다.  </ITEMCNTNTS>  <PLACE>죽성성당</PLACE>  <SUBTITLE>드라마 세트장의 놀라운 변화</SUBTITLE>  <USAGE\_DAY/>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기장군</GUGUN\_NM>  <ADDR1>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134-7</ADDR1>  <HOMEPAGE\_URL/>  <TITLE>기장바다의 색다른 풍경 죽성성당</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1829937\_thumbL</MAIN\_IMG\_THUMB>  <LAT>35.241013</LAT>  </item>  <item>  <MAIN\_TITLE>아홉산 숲</MAIN\_TITLE>  <LNG>129.17046</LNG>  <MIDDLE\_SIZE\_RM1/>  <UC\_SEQ>260</UC\_SEQ>  <USAGE\_AMOUNT>5,000원 (5세부터)</USAGE\_AMOUNT>  <CNTCT\_TEL>051-721-9183</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564573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 → 2-3 마을버스 환승 → 미동마을 하차  주차 아홉산숲 주차장</TRFC\_INFO>  <HLDY\_INFO>매주 월요일</HLDY\_INFO>  <ITEMCNTNTS>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을 지나 산업화를 거치면서도 개방되지 않았던 자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숲.  400년 간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곳,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아홉산숲이 그 주인공이다.  아홉산숲의 아홉산은 아홉 골짜기를 품고 있다는 뜻의 순 우리말이 남아있는 이름이다.  이곳은 2014년, 영화 &lt;군도&gt;의 촬영지가 되며 알려지기 시작했고, 2016년, 400년 간 숲을 관리해온 소유주 가족이 일반인공개를 결정하면서 사람들의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 숲은 오랜 시간동안 그린벨트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태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다.  매표소를 지나면 바로 아홉산의 여정이 시작된다. 산책로의 방향 안내판이 잘 되어 있어 화살표를 따라 걷기만 하면 길을 잃을 걱정은 없다. 아홉산숲 안에는 대나무 군락지를 비롯하여 금강소나무, 편백나무, 참나무 등 여러 다양한 나무들이 자리하고 있다. 웅장한 숲이 주는 울림은 직접 이 곳에 오는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데, 특히 116그루의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받을 만큼 오랜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숲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품고 있음에도 이 숲을 대표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대나무 군락지다. 아홉산의 대숲은 두 군데가 있는데 산책로 따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굿터 맹종죽숲이다. 빽빽하게 뻗어있는 대숲 안으로 들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가려진 하늘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눈이 부시다. 두 번째 대숲은 일명 대나무 가로수길이라 알려진 평지대밭이다. 오솔길을 따라 양쪽으로 대나무 숲이 빼곡히 우거져 한줄기 빛조차 들어오기 힘든 곳, 그래서 더 차분히 산책할 수 있는 곳이다.  긴 세월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채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사이를 지나 다시 입구에 닿으면 숲을 관리하는 집안의 종택 ‘관미헌’을 만날 수 있다. ‘고사리 같은 하찮은 풀도 눈 여겨 본다’는 의미가 담긴 이 종택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전통방식의 한옥이다. 여전히 나무아궁이를 쓰는 이 집은 지금도 숲을 관리하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아홉산숲의 산책로를 모두 둘러보는 데는 대략 1-2시간이 소요된다. 코끝을 스치는 나무향기, 귓가를 울리는 새소리, 나무가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은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니, 이번 주말에는 아홉산숲의 오래된 나무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는 것도 좋겠다.  </ITEMCNTNTS>  <PLACE>아홉산 숲</PLACE>  <SUBTITLE>대나무의 집, 기장 아홉산 숲</SUBTITLE>  <USAGE\_DAY/>  <USAGE\_DAY\_WEEK\_AND\_TIME>평일, 주말 09:00~18:00 (입장마감 16시30분)</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기장군</GUGUN\_NM>  <ADDR1>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미동길 37-1</ADDR1>  <HOMEPAGE\_URL>http://ahopsan.com</HOMEPAGE\_URL>  <TITLE>400년간 지켜온 자연 그대로의 숲을 만나다</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5645736\_thumbL</MAIN\_IMG\_THUMB>  <LAT>35.287334</LAT>  </item>  <item>  <MAIN\_TITLE>해동용궁사 </MAIN\_TITLE>  <LNG>129.22346</LNG>  <MIDDLE\_SIZE\_RM1>장애인 화장실</MIDDLE\_SIZE\_RM1>  <UC\_SEQ>261</UC\_SEQ>  <USAGE\_AMOUNT/>  <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9082338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7번 출구 → 181, 100, 해운대 9 버스 환승 → 해동용궁사 하차  동해선 오시리아역 1번 출구 → 오시리아역 버스정류장 139 버스 환승 → 해동용궁사 하차  부산시티투어버스 부산역(레드라인) → 해운대해수욕장 버스 환승(블루라인 ) → 해동용궁사 하차  주차 해동용궁사 주차장 (유료)</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시원하게 트인 기장 앞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오는 해안절경과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면 어떨까.  바다와 파도와 바람과 그리고 숨멋뷰가 기다리고 있는 풍경, 해동용궁사로 가자.  부산 기장의 시랑리 해안에 위치한 해동용궁사는 정암화상(晸庵和尙)이 바닷가에서 용을 타고 승천하는 관세음보살을 꿈에 보았다는 이야기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산과 바다가 맞닿은 육지의 끝자락에 해동용궁사가 한 폭의 그림처럼 걸려있다.  경내로 향하는 길목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십이지신상은 여행객들에게 자신이 태어난 해의 동물을 찾아 함께 사진을 찍는 재미를 안겨주는 곳이다. 십이지신은 열두 방위의 땅을 지키며 잡귀의 침범을 막고 인간의 오복을 빌어주는 수호신과도 같다. 일주문을 지나 송림 사이로 이어진 108계단에 들어서면 마침내 푸른 바다를 품은 해동용궁사와 만나게 된다. 사찰과 연결된 용문교 위에서는 많은 방문자들이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간절히 빌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준다는 용궁사의 영험함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는 말처럼 경내 전체가 바다뷰인 덕에 서 있는 그곳이 저절로 포토존이 된다. 탁 트인 바다전망을 마음껏 담고 싶다면 대웅전 옆 계단을 올라보길 추천한다. 자애로운 미소를 띤 해수관음대불과 조우하고 발아래 푸른 바다가 내 것이 되는 곳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다.  밀려오는 파도와 기암괴석이 조화를 이루는 해안절경을 만끽하고 싶다면 해안산책로를 따라가 보자.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수평선 저 끝까지 모두 내어주는 해돋이바위는 단연 해동용궁사의 핫플레이스다. 푸른 바다와 함께 걷는 해파랑길 1코스에 속하는 해안산책로는 뚜벅이 여행자들의 발걸음 또한 쉬어가게 만든다.  </ITEMCNTNTS>  <PLACE>해동용궁사</PLACE>  <SUBTITLE>바다전망 성지, 해동용궁사를 가다</SUBTITLE>  <USAGE\_DAY/>  <USAGE\_DAY\_WEEK\_AND\_TIME>매일, 05:00 ~ 일몰 시까지</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기장군</GUGUN\_NM>  <ADDR1>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ADDR1>  <HOMEPAGE\_URL>http://www.yongkungsa.or.kr</HOMEPAGE\_URL>  <TITLE>기장에 가면 해동용궁사</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90823385\_thumbL</MAIN\_IMG\_THUMB>  <LAT>35.188583</LAT>  </item>  <item>  <MAIN\_TITLE>임랑해수욕장</MAIN\_TITLE>  <LNG>129.26451</LNG>  <MIDDLE\_SIZE\_RM1>휠체어 진입 가능,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MIDDLE\_SIZE\_RM1>  <UC\_SEQ>262</UC\_SEQ>  <USAGE\_AMOUNT/>  <CNTCT\_TEL>051-709-40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409380962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 180 버스 환승 → 임랑삼거리 하차  버스 37, 180, 188 임랑삼거리 하차  마을버스 기장군9, 기장군3 임랑삼거리 하차</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부산이지만 아직까지 타지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해수욕장이 있다.  부산 시민이 사랑하는, 기장군의 양대 해수욕장 중 하나인 임랑해수욕장이 그 주인공이다.  입에 머무르는 느낌마저 따뜻한 ‘임랑’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송림(松林)과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파랑(波浪)의 두 글자에서 유래되었다. 임랑해수욕장의 백사장은 1km 이상 이어지며 바다를 감싸고 있는데 그 색이 매우 밝은 게 특징이다.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이라면 첫눈에 하얀 백사장에 반하고 말 것이다.  여름이면 해수욕뿐만 아니라 해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장 임랑 썸머뮤직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해변 대학가요제와 어린이 동요대회 등의 행사도 열린다.  백사장을 따라 걷다보면 영화 ‘더 킹’에 등장했던 촬영장소도 만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배우 조인성의 별장으로 등장했던 집이 바로 그것이다. 백사장 바로 앞에 위치한 집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과 퍽 잘 어울린다.  임랑해수욕장 또한 부산의 여느 바닷가들처럼 여름이면 어김없이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즐비하다.  비교적 파도가 높은 편이어서 서핑을 즐기는 이들도 늘고 있다. 물놀이와 야영을 즐기는 이들을 위해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샤워실, 탈의실을 비롯해 각종 물품 대여도 가능하다. 대형 해수욕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평상이나 방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수욕장 인근에는 민박, 펜션, 횟집들도 있으니 가족단위 방문객이나 연인, 친구 등과 함께 각종 모임을 가지기에도 좋다.  임랑해수욕장의 가장 큰 매력을 꼽자면 ‘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밤은 다른 어떤 바다보다 아름답다. 네온사인이 즐비한 야경을 상상하는 이들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파도에 부서지는 은색 달빛을 만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달이 파도를 계속해서 밀어내기라도 하듯 부서지는 포말은 밤바다의 분위기를 더욱 그윽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임랑해수욕장 인근에는 기장의 4대 고찰 중, 장안사와 묘관음사가 위치해 있다. 조용한 바닷길을 따라 걷다 인근의 산사로 이어지는 여정은 마음까지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한낮의 푸르른 바다와 시원하게 부는 바닷바람, 오래된 절과 함께 하는 시간여행, 밤바다로 이어지는 산책까지.  네온사인이 빛나는 도시 대신 파도에 비치는 달빛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싶은 이에게는 임랑해수욕장만한 곳이 없다.  </ITEMCNTNTS>  <PLACE>임랑해수욕장 </PLACE>  <SUBTITLE>하얀 백사장에 어우어진 은색 달빛</SUBTITLE>  <USAGE\_DAY>해수욕장 개장기간 : 매년 7월 1일 ~ 8월 31일</USAGE\_DAY>  <USAGE\_DAY\_WEEK\_AND\_TIME>09:00~18:00 (개장 중 입수가능 시간)</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기장군</GUGUN\_NM>  <ADDR1>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갑골길</ADDR1>  <HOMEPAGE\_URL/>  <TITLE>나만 알고 싶은 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4093809621\_thumbL</MAIN\_IMG\_THUMB>  <LAT>35.31905</LAT>  </item>  <item>  <MAIN\_TITLE>문화공감 수정, 초량1941</MAIN\_TITLE>  <LNG>129.04265</LNG>  <MIDDLE\_SIZE\_RM1/>  <UC\_SEQ>264</UC\_SEQ>  <USAGE\_AMOUNT>메뉴판 참조</USAGE\_AMOUNT>  <CNTCT\_TEL>문화공감 수정 051-441-0004  초량1941 051-462-7774</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417111584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문화공감 수정  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 1번 출구 도보 7분  버스 103 경남여중 하차 59, 67, 81, 167 고관입구 하차  부산역에서 택시로 기본요금  초량1941  버스 22, 38, 52, 86, 186 금수사 하차  부산역에서 택시로 기본요금</TRFC\_INFO>  <HLDY\_INFO>문화공감 수정 명절 휴무  초량1941 매주 월요일</HLDY\_INFO>  <ITEMCNTNTS>부산이 간직한 근현대 역사, 동구는 그 씨앗이 퍼져 이야기꽃을 피운 동네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문화공감 수정’을 만날 수 있다.  문화공감 수정은 본래 ‘정란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1943년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건물로 일본의 주거 양식을 따라 만들어졌다. 공간이 주는 독특한 매력 덕분에 많은 영화,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 아이유의 밤편지 MV, 악동뮤지션의 사춘기 MV, 범죄와의 전쟁, 장군의 아들 등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주변의 현대식 주택과 대비되는 ‘수정’의 정원으로 들어서면 내리쬐는 햇볕과 푸른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의 풍경이 예스러움을 더한다. 곧바로 내부로 들어가지 않은 채, 잠시 정원에서 한숨을 돌리는 것도 좋겠다.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 듯 고즈넉한 분위기가 주변을 감싼다.  내부는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전통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즈넉한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좌식 테이블이 마련된 방이 나온다. 창호지 문 넘어 풍경이 평화롭다.  문화공감 수정에서 부산역 방향으로 20분 정도 걷다 보면 ‘초량1941’을 만날 수 있다. 초량1941은 지역명에 가옥이 지어진 연도를 합쳐서 만든 이름이다. 가옥 앞 넓은 정원에 있는 그루터기가 어서 오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다. 색이 바랜 처마 밑에 바람 따라 딸랑이는 풍경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힌다.  카페 내부에 들어서면 마치 구한말 경성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고풍스런 입식 테이블이 큰 창문과 어우러져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색적인 소품들을 곳곳에 배치한 주인장의 센스도 엿볼 수 있다. 초량1941은 다양하게 개발한 우유 메뉴가 돋보이는 곳이다. 유리병에 담긴 바닐라우유, 홍차우유 등이 깜찍하다.  걷기 좋은 오후, 근대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일본식가옥에서 감성적인 카페 투어를 하고 싶다면 '문화공감 수정'과 '초량1941'을 추천한다.  </ITEMCNTNTS>  <PLACE>문화공감 수정, 초량1941</PLACE>  <SUBTITLE>근대목조 건물과 함께 하는 여유로운 초량 카페 투어</SUBTITLE>  <USAGE\_DAY/>  <USAGE\_DAY\_WEEK\_AND\_TIME>문화공감 수정 매일 09:00~18:00  초량1941 화~일 11:00~19:0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동구</GUGUN\_NM>  <ADDR1>문화공감 수정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75  초량1941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533-5</ADDR1>  <HOMEPAGE\_URL>https://ntchmgsugung.modoo.at/</HOMEPAGE\_URL>  <TITLE>오래된 이야기가 있는 곳, 문화공감수정 그리고 초량1941</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4171115847\_thumbL</MAIN\_IMG\_THUMB>  <LAT>35.125793</LAT>  </item>  <item>  <MAIN\_TITLE>일광해수욕장</MAIN\_TITLE>  <LNG>129.2336</LNG>  <MIDDLE\_SIZE\_RM1>점자블록,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MIDDLE\_SIZE\_RM1>  <UC\_SEQ>265</UC\_SEQ>  <USAGE\_AMOUNT>무료</USAGE\_AMOUNT>  <CNTCT\_TEL>051-709-40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4335323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 → 1006, 180번 버스환승 → 일광해수욕장 입구 하차  버스 188, 180, 1006 일광해수욕장 입구 하차  마을버스 기장군2, 기장군8-1, 기장군9, 기장군3, 기장군8 일광해수욕장 입구 하차</TRFC\_INFO>  <HLDY\_INFO/>  <ITEMCNTNTS>부산시민이 사랑하는 바다, 일광해수욕장.  역사적으로 기장 8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일광해수욕장은 과거에 해안선을 따라 노송 숲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고려시대부터 정몽주를 비롯한 인사들이 유람했던 절경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일광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는 일광면 삼성리의 이름은 삼성대(三聖臺)에서 유래되었다. 삼성대는 ‘샘섟대’라는 옛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샘은 약수샘, 섟은 배를 매어두는 곳을 말한다고 한다. 현재는 백사장의 가운데 둔덕을 가리켜 삼성대라고 부른다.  일광해수욕장은 1953년 발표된 오영수의 단편소설 &lt;갯마을&gt;의 배경이 될 만큼 부산의 바다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1965년 김수용 감독의 영화 '갯마을'이 이곳에서 촬영되기도 했다. 소설 &lt;갯마을&gt;은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해녀의 딸 해순이 주인공이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고된 삶을 어쩌지 못해 바다를 떠났다가도 결국 갯마을로 돌아오고 마는 여인의 곡절 있는 인생사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소설 &lt;갯마을&gt;과 영화 &lt;갯마을&gt;의 자취는 마을에 남아 1995년부터는 해변축제로 발전했다. 작품을 테마로 마당극 공연을 덧입힌 ‘갯마을 마당극 축제’는 매년 여름에 열린다. 이는 해녀를 주제로 한 전국의 유일의 바다 문화 축제이다. 행사 기간에는 트로트 콘서트, 해녀물질, 기장의 전통적인 어업방식인 후릿그물 체험도 할 수 있다.  일광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들에 비해 수심이 얕고 파도가 약한 편이어서 어린이를 동반한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여타 다른 해수욕장과는 달리 여전히 평상 문화가 남아있고 백사장에서 바비큐 파티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그러나 일광해수욕장만이 간직한 매력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해양 레저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송정해수욕장에 버금가는 새로운 해양 레포츠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제트스키, 플라이 피쉬, 바나나보트, 웨이크보드, 디스코보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젊은 피서객들이 주목하고 있다.  부산의 오래된 바닷가 마을의 모습부터 새로운 해양 레포츠 체험까지. 부산 바다의 옛 모습과 트렌디함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일광해수욕장. 부산 바다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 일광해수욕장의 매력은 사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ITEMCNTNTS>  <PLACE>일광해수욕장</PLACE>  <SUBTITLE>트렌디한 해양스포츠부터 옛 풍경까지</SUBTITLE>  <USAGE\_DAY>개장기간 : 매년 7월 1일 ~ 8월 31일</USAGE\_DAY>  <USAGE\_DAY\_WEEK\_AND\_TIME>09:00~18:00 (개장 중 입수가능 시간)</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기장군</GUGUN\_NM>  <ADDR1>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3길 17 </ADDR1>  <HOMEPAGE\_URL/>  <TITLE>부산바다의 과거와 현재, 일광해수욕장</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43353231\_thumbL</MAIN\_IMG\_THUMB>  <LAT>35.260025</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07</totalCount>  </body>  </response> |

2) [부산명소 영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2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명소 영문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명소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영문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getAttractionEn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키 | 11 | 0 |  | 콘텐츠 키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107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255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흰여울문화마을 | 콘텐츠명 |
| GUGUN\_NM | 구군 | 100 | 0 | Yeongdo-gu | 구군 |
| LAT | 위도 | 20 | 0 | 35.0788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4402 | 경도 |
| PLACE | 여행지 | 300 | 0 | Huinnyeoul Culture Village | 여행지 |
| TITLE | 제목 | 300 | 0 | Huinnyeoul Culture Village at the end of the steep cliff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The beauty of a slow life encountered at Huinnyeoul Trail | 부제목 |
| ADDR1 | 주소 | 200 | 0 | Huinnyeoul-gil, Yeongdo-gu, Busan | 주소 |
| CNTCT\_TEL | 연락처 | 200 | 0 | +82-51-419-4067 | 연락처 |
| HOMEPAGE\_URL | 홈페이지 | 200 | 0 | http://huinnyeoul.co.kr | 홈페이지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Exit 6 of Nampo Station on Busan Metro Line 1 → Transfer to Bus 7, 71, or 508 → Get off at Baengnyeonsa Temple in Yeongseon-dong  Get off Bus 7, 71, or 508 at Baengnyeonsa Temple in Yeongseon-dong  Busan City Tour Bus Busan Station (Jumbo Bus) → Get off at Huinnyeoul Culture Village  Parking: Public parking lot at the entrance of Jeoryeong Coastal Trail (charged) | 교통정보 |
| USAGE\_DAY | 운영일 | 500 | 0 |  | 운영일 |
| HLDY\_INFO | 휴무일 | 500 | 0 |  | 휴무일 |
| USAGE\_DAY\_WEEK\_AND\_TIME | 운영 및 시간 | 500 | 0 | Every day | 운영 및 시간 |
| USAGE\_AMOUNT | 이용요금 | 500 | 0 | Free | 이용요금 |
| MIDDLE\_SIZE\_RM1 | 편의시설 | 500 | 0 | Operates jumbo bus with a wheelchair lift, 50% fee discount, disabled parking (Jeoryeong Coastal Trail Public Parking Lot, charged) | 편의시설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Above the steep wall of the Jeoryeong Coastal Trail is a unique view of the village, where you can see small houses clustered along the narrow alley formed by the coast at the end of the cliff. This is where the sorrowful lives of refugees began and where the current cultural village community of Huinnyeoul Culture Village has been established.  Huinnyeoul-gil, the representative original downtown center of Busan, was named after the current of water at the foot of the Bongnaesan Mountain that resembles the white falling snow. In December 2011, the old house was remodeled and renovated into a unique Culture and Art Village that reflects the life in Yeongdo.  Even those who have not seen The Attorney can probably quote the movie because the quotes are written in large letters on the wall of Jinwoo’s house. Many people who traveled to Yeongdo always took their first photo in front of Jinwoo’s wall, which is located at the starting point of Huinnyeoul Culture Village, the village information center. Huinnyeoul-gil consists of 14 alleys as well as cozy cafés, workshops, and independent bookstores. The ocean breeze enters the slow-paced alleys, and the greenery between rocks add relaxation to daily life. One of the must-visit places on Huinnyeoul-gil is the Huinnyeol Jeomppang, where you can enjoy the best ramen noodles while gazing at the vast ocean. A moment of peace enters the mind as you enjoy your meal after a long day of walking. The end of the road connects to the Jeoryeong Coastal Trail once again and reunites with travelers who walked between the cliffs and the lands below.  The Huinnyeoul Trail along the village walls was the only way to Taejongdae Park before the Jeoryeong Coastal Trail. As you walk to the sound of waves, the gaze is always fixed on the ocean. The anchoring basin shows small and large ships that drop their anchors and stay there, looking like small specks along the Busanhang Port. It is a unique scene that can only be seen at Yeongdo.  In a steep unlivable cliff neighboring the ocean, art bloomed through the hard work of a village community. The seafront of Yeongdo, seen from the Huinnyeoul Observatory, is remarkable.  Now, Here, Us  Huinnyeoul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getAttractionEn?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흰여울문화마을</MAIN\_TITLE>  <LNG>129.04402</LNG>  <MIDDLE\_SIZE\_RM1>Operates jumbo bus with a wheelchair lift, 50% fee discount, disabled parking (Jeoryeong Coastal Trail Public Parking Lot, charged)</MIDDLE\_SIZE\_RM1>  <UC\_SEQ>255</UC\_SEQ>  <USAGE\_AMOUNT>Free</USAGE\_AMOUNT>  <CNTCT\_TEL>+82-51-419-4067</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Exit 6 of Nampo Station on Busan Metro Line 1 → Transfer to Bus 7, 71, or 508 → Get off at Baengnyeonsa Temple in Yeongseon-dong  Get off Bus 7, 71, or 508 at Baengnyeonsa Temple in Yeongseon-dong  Busan City Tour Bus Busan Station (Jumbo Bus) → Get off at Huinnyeoul Culture Village  Parking: Public parking lot at the entrance of Jeoryeong Coastal Trail (charged)</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Above the steep wall of the Jeoryeong Coastal Trail is a unique view of the village, where you can see small houses clustered along the narrow alley formed by the coast at the end of the cliff. This is where the sorrowful lives of refugees began and where the current cultural village community of Huinnyeoul Culture Village has been established.  Huinnyeoul-gil, the representative original downtown center of Busan, was named after the current of water at the foot of the Bongnaesan Mountain that resembles the white falling snow. In December 2011, the old house was remodeled and renovated into a unique Culture and Art Village that reflects the life in Yeongdo.  Even those who have not seen The Attorney can probably quote the movie because the quotes are written in large letters on the wall of Jinwoo’s house. Many people who traveled to Yeongdo always took their first photo in front of Jinwoo’s wall, which is located at the starting point of Huinnyeoul Culture Village, the village information center. Huinnyeoul-gil consists of 14 alleys as well as cozy cafés, workshops, and independent bookstores. The ocean breeze enters the slow-paced alleys, and the greenery between rocks add relaxation to daily life. One of the must-visit places on Huinnyeoul-gil is the Huinnyeol Jeomppang, where you can enjoy the best ramen noodles while gazing at the vast ocean. A moment of peace enters the mind as you enjoy your meal after a long day of walking. The end of the road connects to the Jeoryeong Coastal Trail once again and reunites with travelers who walked between the cliffs and the lands below.  The Huinnyeoul Trail along the village walls was the only way to Taejongdae Park before the Jeoryeong Coastal Trail. As you walk to the sound of waves, the gaze is always fixed on the ocean. The anchoring basin shows small and large ships that drop their anchors and stay there, looking like small specks along the Busanhang Port. It is a unique scene that can only be seen at Yeongdo.  In a steep unlivable cliff neighboring the ocean, art bloomed through the hard work of a village community. The seafront of Yeongdo, seen from the Huinnyeoul Observatory, is remarkable.  Now, Here, Us  Huinnyeoul  </ITEMCNTNTS>  <PLACE>Huinnyeoul Culture Village</PLACE>  <SUBTITLE>The beauty of a slow life encountered at Huinnyeoul Trail</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Every day</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Yeongdo-gu</GUGUN\_NM>  <ADDR1>Huinnyeoul-gil, Yeongdo-gu, Busan</ADDR1>  <HOMEPAGE\_URL />  <TITLE>Huinnyeoul Culture Village at the end of the steep cliff</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85</LAT>  </item>  <item>  <MAIN\_TITLE>깡깡이 예술마을</MAIN\_TITLE>  <LNG>129.03255</LNG>  <MIDDLE\_SIZE\_RM1>Wheelchair accessible</MIDDLE\_SIZE\_RM1>  <UC\_SEQ>256</UC\_SEQ>  <USAGE\_AMOUNT>Differs by program </USAGE\_AMOUNT>  <CNTCT\_TEL>+82-51-418-3336</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120900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Walk for 18 min from Exit 6 of Nampo Station on Busan Metro Line 1  Get off the village bus Yeongdo-gu 2 at Daepyeong-dong  Parking : Namhang Market Parking Lot, Bongnae-dong (charged)</TRFC\_INFO>  <HLDY\_INFO>Every Monday (tour and other facilities)</HLDY\_INFO>  <ITEMCNTNTS>Ships are packed in the lighters wharf across the Jagalchi Market beyond the Yeongdo Bridge. This is where the legendary mecca of fixing ships, the Kangkangee Arts Village, is located. The word “kangkangee” comes from the sound of a hammer hitting the surface of the ship to strip away old and rusty paint or shells at the shipyard. From the days when the ceaseless sound of fixing ships was heard, Daepyeong-dong was called Kangkangee Arts Village.  If you think that the workers making the sounds of fixing ships are men, you are mistaken. The workers who relied on a single rope to fix ships for a long time are the married women of Daepyeong-dong. They are women of steel who endured the hard work at the shipyard while suffering from the noise and ringing in the ears to provide a better future for their children.  You may think that shipyards smell like the ocean and only produce sounds of fixing ships, but the Kangkangee Arts Village has a distinct characteristic as the name “arts village” indicates. A few years ago, in this village filled with the sound of machine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egan. Artists installed public artworks in various locations of the village as part of the Kangkangee Arts Village formation project. Communication with villagers began through facilities and programs, including the Village Workshop, Daily Culture Center, Village Tour, Cruise Program, and Ship Experiencing Program.  Apply for the integrated tour to enjoy guided, vivid alley tours and a cruise ship tour. It is exciting to see the works of artists in each alley. The village museum exhibits various stories about ship fixing and the residential life in the form of videos, artifacts, writing, and artworks collected over the last century.  Busan is best known for Haeundae and Gwangalli, but there’s also more to see and eat at Yeongdo—the original downtown of Busan. Yeongdo has a story tour and historic villages like Kangkangee Arts Village, which has been reinforced with artistic elements. Enjoy the living history of Kangkangee Arts Village, the Busan’s present progressive modern culture.  </ITEMCNTNTS>  <PLACE>Kangkangee Arts Village</PLACE>  <SUBTITLE>Where history and the arts coexist</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Weekdays and weekends 10:00–17:00  It is recommended to join the weekend or integrated tour programs instead of choosing weekdays.</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Yeongdo-gu</GUGUN\_NM>  <ADDR1>Kangkangee Information Center, 36, Daepyeongbuk-ro, Yeongdo-gu, Busan</ADDR1>  <HOMEPAGE\_URL>http://kangkangee.com/index.php/englishpage\_about/</HOMEPAGE\_URL>  <TITLE>Kangkangee Arts Village where history lives on</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1209005\_thumbL</MAIN\_IMG\_THUMB>  <LAT>35.092648</LAT>  </item>  <item>  <MAIN\_TITLE>국립해양박물관</MAIN\_TITLE>  <LNG>129.08018</LNG>  <MIDDLE\_SIZE\_RM1>Lockers (1F, 2F), wheelchair free rental, braille blocks, braille signs, guide dogs allowed, elevator available, disabled parking, disabled restrooms, wheelchair seats inside the 4D theater</MIDDLE\_SIZE\_RM1>  <UC\_SEQ>257</UC\_SEQ>  <USAGE\_AMOUNT>Free admission (4D Theater and paid special exhibitions excluded)</USAGE\_AMOUNT>  <CNTCT\_TEL>+82-51-309-19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562750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Exit 6 of Nampo Station at Busan Metro Line 1 → Transfer to Bus 186 or 66 → Get off at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Busan City Tour Bus : Busan Station (Jumbo bus) → Get off at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Parking: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Parking Lot (charged)</TRFC\_INFO>  <HLDY\_INFO>Every Monday</HLDY\_INFO>  <ITEMCNTNTS>Busan equals ocean, and ocean equals Busan. But how much do we actually know about the oceans of Korea?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where stories of all oceans around the world begin, connect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ocean.  The building boasts a magnificent exterior against the front sea of Busan. Symbolizing a teardrop bursting forth, the exterior is like a spaceship that travels across the galaxy.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is the only comprehensive maritime museum in Korea that displays specialized data in the fields of maritime culture, history, science, and archaeology and provides high-level maritime experience programs.  Let’s start with the third floor where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is located. A large aquarium grabs your attention the moment you enter the space. Large sea turtles swim over your head, making children gather in front of the water tank. Right next to the aquarium is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where you can see the sailing ships that show us the maritime skills of our ancestors, marine people who continued to take on challenges without fear of the ocean, and the traditional sea route that shows how people lived on the sea. The wooden ship used by the Korean missions to foreign countries is reproduced in almost the actual size, forming a popular photo zone where people wait in line to take pictures. To learn about the origin of interesting sea animals, visit the Maritime Life Exhibition Hall, and to satisfy your curiosity on marine leisure, visit the Maritime Experience Hall. There, you will witness fun activities that bring you closer to the ocean.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 continues on to the fourth floor. Marine industry exhibition suggests the history of the traditional maritime industries and the productive power of the ocean, while exhibitions on deep-ocean exploration or polar research solve questions on uncharted territory.  Now let’s head over to the Children’s Museum on the second floor with children who love the ocean. The Children’s Museum is a maritime experience space where children operate and experience objects. Children are deep into fun play involving the ocean that they don’t even keep track of time. With a separate picnic room, this space is a popular location for family visitors who pack their lunch.  Want a special space to visit with your family? Then visit the 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ITEMCNTNTS>  <PLACE>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PLACE>  <SUBTITLE>Maritime, how much do you know?</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Weekdays 09:00–18:00  -Saturdays [September–April] 09:00–19:00 / [May–August] 09:00–21:00  -Sundays, holidays 09:00–19:00  -Lunar New Year’s Day, the day after Chuseok , Children’s Day, Liberation Day 09:00–21:00  Maritime Library  - 09:00–18:00  - Closed on: Museum holidays and legal holidays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Yeongdo-gu</GUGUN\_NM>  <ADDR1>45, Haeyang-ro 301beon-gil, Yeongdo-gu, Busan</ADDR1>  <HOMEPAGE\_URL>https://www.knmm.or.kr/eng/main/main.aspx</HOMEPAGE\_URL>  <TITLE>Korea National Maritime Museum, the Flower of Maritime Culture</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5627506\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728</LAT>  </item>  <item>  <MAIN\_TITLE>태종대</MAIN\_TITLE>  <LNG>129.0878</LNG>  <MIDDLE\_SIZE\_RM1>Disabled parking; disabled restrooms; guide dogs allowed; Danubi Train wheelchair lift; wheelchair free rental (Main Gate Tourist Information Center)</MIDDLE\_SIZE\_RM1>  <UC\_SEQ>258</UC\_SEQ>  <USAGE\_AMOUNT>Free (Danubi Train Fee separate)</USAGE\_AMOUNT>  <CNTCT\_TEL>+82-51-405-8745</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082996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Exit 7 of Busan Station on Busan Metro Line No. 1 → Transfer to bus 66, 88, or 101 → Get off at Taejongdae Park (Taejongdae Hot Springs)  Get off the bus 8, 30, 66, 88, 101, or 186 at Taejongdae Park (Taejongdae Hot Springs)  Parking: Main Gate Parking Lot (for bus only), Parking Lot No. 7, Jayu Land Parking Lot (charged)</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This place allows you to walk along the green forest path and view the blue ocean simultaneously. The multicolored rocky coast boasts its beauty formed by years of crashing waves. We’re talking about Taejongdae Park at the southern end of Yeongdo, Busan. Taejongdae was named after King Taejong Muyeol of Silla, who used to stop by the region and practice archery as he was mesmerized by the beauty of the landscape. Taejongdae Park, where unique rocks are formed and visitors are greeted by the dense forest surrounded by the deep blue ocean, is a leading travel destination in Korea.  Most visitors use the Danubi Train, adorned with a cute exterior, circulating the Taejongdae Recreation Area Road. Walk 5 min from the main gate tourist information center to see the Danubi Train Ticket Booth and platform, and make sure to check the discount benefits. After departing, you can conveniently get off at the numerous stops along the beltway. Besides the train, you can also leisurely walk on the natural tunnel formed by trees. You can go anywhere with a pair of sneakers and Taejongdae’s well-organized beltway and walking trail.  Pass by Taewon Pebble Beach and Namhang Viewing Point to reach the first stop of the Danubi Train, the Observatory Rest Area. Most of the visitors on the train get off here. It is a must-visit observatory point when traveling to Taejongdae Park and a place where you can take awesome pictures. At the observatory, you can view as far as Oryukdo Islets and Tsushima Island when the sky is clear. Below the stairs next to the observatory is the Yeongdo Lighthouse where the light has never been extinguished since 1906. In 2004, the space was renovated into a maritime culture space equipped with the See &amp; Sea Gallery, Observatory, Natural History Museum, and Café “Blue Ocean.” The Sinseon Rock below the lighthouse has a sad legend in which a wife who had been waiting for her husband who sailed out to the ocean was turned into a Mangbuseok Rock.  Taejongdae Park has an excellent observatory point that looks out into the ocean and a well-organized maritime pebble yard and a connecting stairway path. Travelers get excited at the changing scenery as they walk around. Despite being located near the city, the place feels like it’s less tainted by the dirt of the world.  </ITEMCNTNTS>  <PLACE>Taejongdae Recreation Area</PLACE>  <SUBTITLE>Best with your family, lover, or friends</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Every day</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Yeongdo-gu</GUGUN\_NM>  <ADDR1>24, Jeonmang-ro, Yeongdo-gu, Busan</ADDR1>  <HOMEPAGE\_URL>https://bit.ly/3dydJIr</HOMEPAGE\_URL>  <TITLE>Taejongdae Park’s 100 years of history with Yeongdo Lighthouse</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0829962\_thumbL</MAIN\_IMG\_THUMB>  <LAT>35.052643</LAT>  </item>  <item>  <MAIN\_TITLE>죽성성당</MAIN\_TITLE>  <LNG>129.24864</LNG>  <MIDDLE\_SIZE\_RM1>Wheelchair accessible</MIDDLE\_SIZE\_RM1>  <UC\_SEQ>259</UC\_SEQ>  <USAGE\_AMOUNT>Free</USAGE\_AMOUNT>  <CNTCT\_TEL />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182993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Take Express Bus 1003 at Haeundae Oncheon Sageori → Get off at Gijang Catholic Church → Transfer to Village Bus 6 → Get off at Duho Village  Take Village Bus 6 at the Gijang-gun Office → Get off at Duho Village  Parking: Parking lot near the Jukseong Catholic Church (charged)  </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The ocean of Gijang that retains the emerald color of the East Sea is a location visited by many people. On sunny or cloudy days, it is a great location for driving along the coast, where romantic cafés offer a great view. Visitors always stop by the Jukseong Catholic Church in Gijang.  The Jukseong Catholic Church in Jukseong-ri, Gijang-gun, Busan, has an uncommon mood to it because of its location in a small fishing village. Similar to a coastal village in the middle ages, the landscape is as pretty as a picture. The white foam that splashes over the rocks contrasts against the red roof of the church, grabbing the attention of visitors.  The space that looks like it’s for ringing the bell that invites people to mass is actually a filming set built in 2009 for the SBS drama Dream. While people no longer talk about the drama, the well-made space is a must-travel destination for tourists who visit Gijang.  Many people wait in line at the photo zone of the Jukseong Catholic Church that looks exactly like the picture. The blue ocean and sky inside the frame create a beautiful backdrop. Look at the vast and open sea to enjoy your time alone, or film a movie with a loved one. You should not miss the surrounding landscape, such as the broad and flat rock next to the church—a great spot to enjoy the open sea with every fiber of the body. Unlike the Haeundae or Gwangalli Beaches, this is the perfect place to enjoy the quiet mood of a small coastal village. The church’s interior is operated as a gallery, which means that you can see a great exhibition if you’re lucky.  The black pine tree at Jukseong-ri, 10 min away by foot from the church, is a unique landscape as well. This pine tree is an old, large plant composed of five trees that are combined to look like one big tree estimated to be 250–300 years old. Villagers used to hold a ritual wishing for big catch of fish, and the Guksudang Shrine that enshrines the tutelary deity gives the place a high folk value. The old pine branches sagging downward appear as if they are calling out to travelers.  Jukseong Catholic Church keeps its charm with the blue sky and endless ocean. The cool breeze and foamy surf of the waves create a refreshing mood. In addition, the union between the red, pointy roof of the church and the great nature serves as a small paradise for the modern people living a busy life.  </ITEMCNTNTS>  <PLACE>Jukseong Catholic Church</PLACE>  <SUBTITLE>An amazing change in the filming location</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Every day</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Gijang-gun</GUGUN\_NM>  <ADDR1>134-7, Jukseong-ri, Gijang-eup, Gijang-gun, Busan</ADDR1>  <HOMEPAGE\_URL />  <TITLE>The unique view of the Gijang Ocean at Jukseong Catholic Church</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1829937\_thumbL</MAIN\_IMG\_THUMB>  <LAT>35.241013</LAT>  </item>  <item>  <MAIN\_TITLE>아홉산 숲</MAIN\_TITLE>  <LNG>129.17046</LNG>  <MIDDLE\_SIZE\_RM1 />  <UC\_SEQ>260</UC\_SEQ>  <USAGE\_AMOUNT>KRW 5,000 (from age 5)</USAGE\_AMOUNT>  <CNTCT\_TEL>+82-51-721-9183</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564573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Nopo Station on Busan Metro Line 1 → Transfer to Village Bus 2-3 → Get off at Midong Village  Parking : Ahopsan Forest Parking Lot</TRFC\_INFO>  <HLDY\_INFO>Every Monday</HLDY\_INFO>  <ITEMCNTNTS>The forest has kept its natural condition unopened to the public throughout the Japanese occupation, liberation, war, and industrialization.  The Ahopsan Forest in Gijang-gun, Busan, is a place that was not open to the world for 400 years.  “Ahopsan” of Ahopsan Forest is a pure Korean word that means embracing the nine valleys.  The place became known to the world after becoming the filming location for the movie Kundo: Age of the Rampant in 2014. In 2016, the owners who managed the forest for 400 years decided to open the place to the public. The forest was designated as a green belt and water source conservation area for a long time, preserving the healthy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Once you pass the ticket booth, your journey to the nine mountains begins. The directions are easy to follow on trails, ensuring safe travel as long as you follow the arrows. Inside the Ahopsan Forest are the bamboo habitat, red pine trees, hinoki cypress trees, oak trees, and other trees. The vast forest has a magnificent feel that only visitors can understand. A total of 116 trees are designated as protected trees, showing how long and precious the history of the forest is.  Even though the forest is home to many types of trees, what represents the place is the bamboo habitat. There are two bamboo forests within the nine mountains. The Maengjongjuk Forest (used as a place for shamanic ritual before) is the first one encountered along the trail. Go into the dense bamboo forest and look up to the sky to see the glistening sunlight between the leaves. The second bamboo forest is a flat bamboo field known as the bamboo tree–lined trail. The bamboo forest densely populates both sides of the path to block most light, allowing visitors to take a stroll.  Once you reach the entrance past the tall trees untouched by people over many years, you will come across the Gwanmiheon, the head house belonging to the family that manages the forest. Gwanmiheon, meaning “Keeping an eye out for even the most trivial grass-like bracken,” was built in the traditional method without using any nails and still uses a wooden furnace.  It takes 1 to 2 hours to explore all the trails of the Ahopsan Forest. The fragrance of trees, the birds singing, and the cool shade created by trees are more than enough to rejuvenate the hearts of those tired of busy daily life. Why don’t you walk through the old trees at the Ahopsan Forest this weekend to relieve stress?  </ITEMCNTNTS>  <PLACE>Ahopsan Forest</PLACE>  <SUBTITLE>Gijang Ahopsan Forest, The house of bamboo trees</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Tuesday−Sunday : 09:00–18:00 (Entry closed at 16:3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Gijang-gun</GUGUN\_NM>  <ADDR1>37-1, Midong-gil, Cheolma-myeon, Gijang-gun, Busan</ADDR1>  <HOMEPAGE\_URL />  <TITLE>Meet the forest preserved for over 400 years in its natural state</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5645736\_thumbL</MAIN\_IMG\_THUMB>  <LAT>35.287334</LAT>  </item>  <item>  <MAIN\_TITLE>해동용궁사 </MAIN\_TITLE>  <LNG>129.22346</LNG>  <MIDDLE\_SIZE\_RM1>Disabled restrooms</MIDDLE\_SIZE\_RM1>  <UC\_SEQ>261</UC\_SEQ>  <USAGE\_AMOUNT>Free</USAGE\_AMOUNT>  <CNTCT\_TEL>+82-51-722-7744</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9082338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Exit 7 of Haeundae Station on Busan Metro Line 2 → Transfer to Bus 181, 100 or Haeundae 9 → Get off at Haedong Yonggungsa Temple  Exit 1 of Osiria Station on Donghae Line → Transfer to Bus 139 at the Osiria Station → Get off at Haedong Yonggungsa Temple  Busan City Tour Bus Busan Station (Red Line) → Transfer to Haeundae Beach Bus (Blue Line) → Get off at Haedong Yonggungsa Temple  Parking: Haedong Yonggungsa Temple Parking Lot (charged)</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Have you ever heard the waves from the sea of Gijang? What if the vast, endless ocean and the magnificent coastal view were spread out before your very eyes?  Let’s visit Haedong Yonggungsa Temple, where the wind, waves, and breathtaking views await.  Located on the coast of Sirang-ri, Gijang-gun, Busan, Haedong Yonggungsa Temple received its name from a dream of Buddhist Monk Jeongam whom Avalokitesvara Bodhisattva ascended on the back of a dragon by the coast. Haedong Yonggungsa Temple is hung over the edge of the land, where the sea meets the mountain like a piece of painting.  On the way to the precincts of the temple, you will first see the 12 zodiac animal deities where you can find the animal of your birth year and take pictures. The 12 gods protect the land in 12 directions, block the invasion of evil spirits, and act as fairy godmothers that wish for the five blessings. Go through the Iljumun Gate, and reach the 108 stairs connected through the pine grove to see the Haedong Yonggungsa Temple embracing the blue ocean finally. Above Yongmungyo Bridge, connected to the temple, many visitors throw coins and make wishes. Legend says that the Yonggungsa Temple grants at least one wish.  Known as the most beautiful temple in Korea, the whole interior becomes a photo zone with an oceanic view. If you want to photograph the breathtaking view of the ocean, climb up the stairs next to the Daeungjeon Hall. Meet the benevolent Seaside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take memorable photographs where the blue sea becomes yours below your feet.  If you want to enjoy the coastal landscape that harmonizes with the waves and the unique rock formation, follow the coastal trail. The sunrise rock, where you can see the horizon that runs across the sky and sea, is a hot spot of Haedong Yonggungsa Temple. Moreover, the coastal trail that belongs to Haeparang Trail Route 1 makes visitors pause and take a break.  </ITEMCNTNTS>  <PLACE>Haedong Yonggungsa Temple </PLACE>  <SUBTITLE>Visiting Haedong Yonggungsa Temple, the sacred site of ocean views</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Every day, 05:00–sunset</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Gijang-gun</GUGUN\_NM>  <ADDR1>86, Yonggung-gil, Gijang-eup, Gijang-gun, Busan</ADDR1>  <HOMEPAGE\_URL>http://www.yongkungsa.or.kr/eng/01/01.php</HOMEPAGE\_URL>  <TITLE>Haedong Yonggungsa Temple in Gijang</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90823385\_thumbL</MAIN\_IMG\_THUMB>  <LAT>35.188583</LAT>  </item>  <item>  <MAIN\_TITLE>임랑해수욕장</MAIN\_TITLE>  <LNG>129.26451</LNG>  <MIDDLE\_SIZE\_RM1>Wheelchair accessible; disabled parking; disabled restrooms</MIDDLE\_SIZE\_RM1>  <UC\_SEQ>262</UC\_SEQ>  <USAGE\_AMOUNT>Free</USAGE\_AMOUNT>  <CNTCT\_TEL>+82-51-709-40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409380962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Haeundae Station on Busan Metro Line 2 → Transfer to Bus 180 → Get off at Imnang Samgeori  Get off Bus 37, 180, or 188 at Imnang Samgeori  Get off Village Bus Gijang-gun 9 or Gijang-gun 3 at Imnang Samgeori</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Summer is the sea, and the sea is Busan, but this beach is not known to outsiders yet.  Imnang Beach is the beach loved by the people of Busan and considered to be one of the two top beaches of Gijang-gun.  Imnang, pronounced with a warm feel, originated from “im” and “rang” of the words “songnim” and “parang,” respectively. The sandy beach of the Imnang Beach stretches out over one kilometer and has a distinctly bright color that wraps around the ocean. Visitors who come to the place for the first time will be astounded by the white sandy beach.  In summer, in addition to sea bathing, various events are held, including the “Gijang Imnang Summer Music Festival” that you can watch for free at the beach, the Imnang Beach College Song Festival, and the Children’s Song Contest.  Walk along the sandy beach to see the filming location that appeared in The King—the house that appeared as the villa of actor Jo In-sung. The house in front of the sandy beach goes nicely with the quiet beach village.  Imnang Beach, just like any other beach in Busan, is packed with tourists who came to enjoy their vacation.  Because the waves are on the high side, surfers are increasing. For those who want to enjoy swimming and camping, there are various amenities, including shower rooms, changing rooms, and various items available for rental. The beach is unlike other large beaches where many people borrow wooden benches or rooms. Near the beach, there are lodgings, pensions, or raw fish restaurants for families, lovers, or friends to gather.  The greatest charm of Imnang Beach is the nighttime view unmatched by any other sea. Those of you who imagined a night with neon signs may have been disappointed, but meeting the silver moonlight that reflects against the waves changes the story. The foam created by the waves as the moon brightens the sky makes the night sea romantic and mellow.  Located near the Imnang Beach are Jangansa Temple and Myogwaneumsa Temple, two of the four old temples in Gijang. Walking along the quiet coastal trail that leads up to the mountain temple will calm your heart.  Catch the blue ocean and the fresh sea breeze during the daytime. Travel back in time at the old temple, and enjoy a walk by the ocean at night.  There is no place as great as the Imnang Beach for those who want to enjoy the beauty of moonlight reflected against the waves instead of the neon signs of the city.  </ITEMCNTNTS>  <PLACE>Imnang Beach </PLACE>  <SUBTITLE>Silver moonlight against the white sandy beach</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Open Period: July 1–August 31 each year  09:00–18:00 (swimming hours)</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Gijang-gun</GUGUN\_NM>  <ADDR1>Imnang Beach </ADDR1>  <HOMEPAGE\_URL />  <TITLE>Imnang Beach, The Beach that only I want to know</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4093809621\_thumbL</MAIN\_IMG\_THUMB>  <LAT>35.31905</LAT>  </item>  <item>  <MAIN\_TITLE>문화공감 수정, 초량1941</MAIN\_TITLE>  <LNG>129.04265</LNG>  <MIDDLE\_SIZE\_RM1 />  <UC\_SEQ>264</UC\_SEQ>  <USAGE\_AMOUNT>Refer to the menu</USAGE\_AMOUNT>  <CNTCT\_TEL>Munhwa Gonggam Sujeong : +82-51-441-0004  Choryang 194 : +82-51-462-7774</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417111584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Munhwa Gonggam Sujeong  Walk for 7 min from Exit 1 of Busanjin Station on Busan Metro Line 1  Get off Bus 103 at Gyeongnam Girls’ Middle School  Get off Bus 59, 67, 81, or 167 at the entrance to Gogwan  Basic fare by taxi from Busan Station  Choryang 1941  Get off Bus 22, 38, 52, 86, or 186 at Geumsusa Temple  Basic fare by taxi from Busan Station</TRFC\_INFO>  <HLDY\_INFO>Munhwa Gonggam Sujeong : National holidays  Choryang 1941 : Every Monday</HLDY\_INFO>  <ITEMCNTNTS>Dong-gu is a town where the seed of Busan’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has spread and blossomed into stories. If you follow the trail that embodies the stories, you will reach Munhwa Gonggam Sujeong.  Munhwa Gonggam Sujeong was originally called Jeongnangak House . The building was built in 1943,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following the traditional Japanese housing style. Thanks to its unique charm, this space has been used as the setting for many films such as the Nameless Gangster: Rules of the Time and General’s Son as well as music videos, including IU’s “Night Letter.”  Once you enter the garden of Sujeong, which contrasts with the surrounding modern houses, you will see how the landscape—in harmony with a pool of sunlight and green trees—adds to its antique beauty. It’s a good idea to take a breath in the garden rather than go inside right away. The quiet and still atmosphere surrounds you as if you were traveling back in time.  The house is in operation as a traditional tea house, divided into the first and second floors. Along the quiet corridor, you will find a room with a low tea table. You can appreciate the peaceful scenery beyond the mulberry-paper window.  Walk for about 20 min from Munhwa Gonggam Sujeong to Busan Station, and you will find “Choryang 1941.” Choryang 1941 is a combination of the area’s name ‘Choryang’ and the year when the house was built. The stump in its large front garden seems to say “welcome.” Under the faded leaves, the traditional Korean wind chime is ringing in the breeze.  Once you enter the café, you will feel as if you were in Seoul during the latter era of the Joseon Dynasty. The antique tables are in harmony with the tall, modern windows. In addition, the unusual items placed here and there show the owner’s meticulous care. Choryang 1941 features various outstanding self-developed milk menus. The small bottles of vanilla milk, black tea milk, and the other items look irresistibly cute.  If you want to tour exotic Japanese-style cafés on such a nice day to walk while feeling the scent of the modern days, you should visit Choryang 1941 and Munhwa Gonggam Sujeong.  </ITEMCNTNTS>  <PLACE>Munhwa Gonggam Sujeong and Choryang 1941</PLACE>  <SUBTITLE>Relaxing leisurely café tour with the modern wooden building</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Munhwa Gonggam Sujeong : Monday−Sunday 09:00−18:00  Choryang 1941: Tuesday–Sunday 11:00−19:0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Dong-gu</GUGUN\_NM>  <ADDR1>Munhwa Gonggam Sujeong : 75, Honggok-ro, Dong-gu, Busan  Choryang 1941 : 533-5, Mangyang-ro, Dong-gu, Busan</ADDR1>  <HOMEPAGE\_URL />  <TITLE>Munhwa Gonggam Sujeong and Choryang 1941, where old stories remain</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4171115847\_thumbL</MAIN\_IMG\_THUMB>  <LAT>35.125793</LAT>  </item>  <item>  <MAIN\_TITLE>일광해수욕장</MAIN\_TITLE>  <LNG>129.2336</LNG>  <MIDDLE\_SIZE\_RM1>Braille block; disabled parking; disabled restrooms</MIDDLE\_SIZE\_RM1>  <UC\_SEQ>265</UC\_SEQ>  <USAGE\_AMOUNT>Free</USAGE\_AMOUNT>  <CNTCT\_TEL>+82-51-709-40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4335323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Haeundae Station on Busan Metro Line 2 → Transfer to Bus 1006 or 180 → Get off at the Entrance to Ilgwang Beach  Get off the Bus 188, 180, or 1006 at the Entrance to Ilgwang Beach  Get off Village Bus Gijang-gun 2, Gijang-gun 8-1, Gijang-gun 9, Gijang-gun 3 or Gijang-gun 8 at the Entrance to Ilgwang Beach</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Ilgwang Beach loved by the people of Busan.  Ilgwang Beach, considered one of the Eight Sights of Gijang, used to have the old pine forest along the coastline. It was one of the magnificent sights viewed by famous people, including Jeong Mong-ju, since the Goryeo period.  Ilgwang Beach is located in Samseong-ri, Ilgwang-myeon. The name of Samseong-ri originated from Samseongdae, which comes from the old word “saemseokdae,” a combination of the words “mineral spring” and “the place where ships are docked.” Today, the middle mound of the sandy beach is referred to as the “samseongdae.”  Ilgwang Beach is a symbolic place that represents a seaside village of Busan that also served as the setting for O Yeong-su’s short novel Gaenmaeul (The Seaside Village) published in 1953 and the filming location for the Director Kim-Soo-yong’s 1965 film based on the novel. In the novel, Haesun, the daughter of a diver who was born and raised in the coastal village, is the protagonist. The work portrays the turbulent life of a woman who leaves the town for its hardships, yet ends up returning to the seaside villag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novel Gaenmaeul and its movie left meaningful traces in the town, turning the place into the site of the coastal festival since 1995. The “Gijang Village of an Estuary Performance Festival,” based on the novel and the movie, is held each summer. This is the only sea culture festival in the nation that centers on the theme of women divers. During the festival, visitors may also experience the trot concert, women diver training, and traditional dragnet training.  Ilgwang Beach is shallow and less wavy than other beaches, and therefore, popular among groups with children. Unlike other beaches, it still has a low-bench culture and allows hosting barbeque parties on the sandy beach.  The unique charm of Ilgwang Beach, however, goes one step forward. It is receiving great attention as a new maritime leisure sports hub that is comparable to Songjeong Beach, which has risen as a hot place of maritime leisure. Jet Ski, fly-fish, banana boat, wakeboard, and disco boat are prepared for young visitors.  Ilgwang Beach is a place where you can experience both the old and the trendy Busan. Check out the old village town, and enjoy new marine leisure sports. The charm of Ilgwang Beach, where the past and future of Busan Sea coexist, can be witnessed all year round.  </ITEMCNTNTS>  <PLACE>Ilgwang Beach</PLACE>  <SUBTITLE>From trendy maritime sports to old landscape</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Open Period: July 1–August 31 each year  09:00–18:00 (swimming hours)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Gijang-gun</GUGUN\_NM>  <ADDR1>17, Samseong 3-gil,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ADDR1>  <HOMEPAGE\_URL />  <TITLE>Ilgwang Beach, the past and present of the Busan Sea </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43353231\_thumbL</MAIN\_IMG\_THUMB>  <LAT>35.260025</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07</totalCount>  </body>  </response> |

3) [부산명소 일문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3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명소 일문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명소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일문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getAttractionJa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 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108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255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흰여울문화마을 | 콘텐츠명 |
| GUGUN\_NM | 구군 | 100 | 0 | 影島区 | 구군 |
| LAT | 위도 | 20 | 0 | 35.0788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4402 | 경도 |
| PLACE | 여행지 | 300 | 0 | ヒンヨウル文化村 | 여행지 |
| TITLE | 제목 | 300 | 0 | ヒンヨウル文化村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ヒンヨウルで感じるスローな美学 | 부제목 |
| ADDR1 | 주소 | 200 | 0 | 釜山影島区ヒンヨウルギル | 주소 |
| CNTCT\_TEL | 연락처 | 200 | 0 | +82-51-419-4067 | 연락처 |
| HOMEPAGE\_URL | 홈페이지 | 200 | 0 | http://huinnyeoul.co.kr | 홈페이지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都市鉄道：1号線南浦駅6番出口→7、71、508バスに乗り換え→瀛仙洞白蓮寺下車  バス：7,71,508番で瀛仙洞白蓮寺下車  釜山シティツアーバス：釜山駅（ジャンボバス）→ヒンヨウル文化村下車  駐車：絶影海岸散策路入口公営駐車場（有料） | 교통정보 |
| USAGE\_DAY | 운영일 | 500 | 0 |  | 운영일 |
| HLDY\_INFO | 휴무일 | 500 | 0 |  | 휴무일 |
| USAGE\_DAY\_WEEK\_AND\_TIME | 운영 및 시간 | 500 | 0 | 常時 | 운영 및 시간 |
| USAGE\_AMOUNT | 이용요금 | 500 | 0 | 無料 | 이용요금 |
| MIDDLE\_SIZE\_RM1 | 편의시설 | 500 | 0 | 車いすリフト付きジャンボバスあり、料金割引50％、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絶影海岸散策路公営駐車場、有料） | 편의시설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絶影海岸散策路の急な崖の上に、一風変わった村が見える。海岸の崖の端に、海沿いの狭い路地を中心に小さな家々が密集している。ここは、かつて避難民たちが厳しい暮らしを始めた場所で、現在は村の住民と共生する文化コミュニティとなっている「ヒンヨウル文化村」だ。  釜山を代表する旧都心、「ヒンヨウル(白い瀬)ギル」。この地名は、蓬莱山の麓から流れる川が、まるで白い雪が降っているように見えたことに由来する。2011年12月から古い家屋が改造され、今は影島の暮らしを身近に感じられる独創的な文化芸術村として生まれ変わった。  映画『弁護人』を観ていなくても、映画の名ゼリフぐらいは聞いたことがあるはず。映画に登場する「ジヌ」の家の塀に、大きく書かれていたからだ。影島を訪れる観光客が必ずと言っていいほど記念写真を撮るのが、このジヌの家の塀だった。この壁がある所が、ヒンヨウル文化村観光のスタート地点、村の案内所である。ヒンヨウルギルは14本の路地からなり、あちこちにこぢんまりとしたカフェや工房、インディーズ書店などがある。ゆっくり路地を歩きながら眺める海の風景、石の隙間に咲いた名もない草が、日常に余裕を与えてくれる。ヒンヨウルギルで外せないもう一つのコースはヒンヨウルジョムパン」だ。広々とした海を眺めながら食べるラーメンは絶品。疲れた心身が一気にリフレッシュされる。通りの先は再び絶影海岸散策路とつながっていて、崖の上下を行き来する観光客の姿が見える。  村の塀に沿って伸びるヒンヨウルギルは、絶影路ができるまでは太宗台に行く唯一のルートだった。波の音の中を歩きながら、いつまでも海を眺めていたくなる。様々な大きさの船が海に浮かんでいて、エキゾチックな雰囲気が感じられる。釜山港に入る船が錨を下ろして停泊する錨泊地の風景だ。影島ならではの一風変わった風景でもある。  海に面する急な崖であるため人が暮らすのに適していなかったこの場所に、コミュニティの取り組みで芸術が定着した。ヒンヨウル展望台から眺める影島の沖の海が美しい。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getAttractionJa?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흰여울문화마을</MAIN\_TITLE>  <LNG>129.04402</LNG>  <MIDDLE\_SIZE\_RM1>車いすリフト付きジャンボバスあり、料金割引50％、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絶影海岸散策路公営駐車場、有料）</MIDDLE\_SIZE\_RM1>  <UC\_SEQ>255</UC\_SEQ>  <USAGE\_AMOUNT>無料</USAGE\_AMOUNT>  <CNTCT\_TEL>+82-51-419-4067</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1号線南浦駅6番出口→7、71、508バスに乗り換え→瀛仙洞白蓮寺下車  バス：7,71,508番で瀛仙洞白蓮寺下車  釜山シティツアーバス：釜山駅（ジャンボバス）→ヒンヨウル文化村下車  駐車：絶影海岸散策路入口公営駐車場（有料）</TRFC\_INFO>  <HLDY\_INFO>年中無休</HLDY\_INFO>  <ITEMCNTNTS>絶影海岸散策路の急な崖の上に、一風変わった村が見える。海岸の崖の端に、海沿いの狭い路地を中心に小さな家々が密集している。ここは、かつて避難民たちが厳しい暮らしを始めた場所で、現在は村の住民と共生する文化コミュニティとなっている「ヒンヨウル文化村」だ。  釜山を代表する旧都心、「ヒンヨウル(白い瀬)ギル」。この地名は、蓬莱山の麓から流れる川が、まるで白い雪が降っているように見えたことに由来する。2011年12月から古い家屋が改造され、今は影島の暮らしを身近に感じられる独創的な文化芸術村として生まれ変わった。  映画『弁護人』を観ていなくても、映画の名ゼリフぐらいは聞いたことがあるはず。映画に登場する「ジヌ」の家の塀に、大きく書かれていたからだ。影島を訪れる観光客が必ずと言っていいほど記念写真を撮るのが、このジヌの家の塀だった。この壁がある所が、ヒンヨウル文化村観光のスタート地点、村の案内所である。ヒンヨウルギルは14本の路地からなり、あちこちにこぢんまりとしたカフェや工房、インディーズ書店などがある。ゆっくり路地を歩きながら眺める海の風景、石の隙間に咲いた名もない草が、日常に余裕を与えてくれる。ヒンヨウルギルで外せないもう一つのコースはヒンヨウルジョムパン」だ。広々とした海を眺めながら食べるラーメンは絶品。疲れた心身が一気にリフレッシュされる。通りの先は再び絶影海岸散策路とつながっていて、崖の上下を行き来する観光客の姿が見える。  村の塀に沿って伸びるヒンヨウルギルは、絶影路ができるまでは太宗台に行く唯一のルートだった。波の音の中を歩きながら、いつまでも海を眺めていたくなる。様々な大きさの船が海に浮かんでいて、エキゾチックな雰囲気が感じられる。釜山港に入る船が錨を下ろして停泊する錨泊地の風景だ。影島ならではの一風変わった風景でもある。  海に面する急な崖であるため人が暮らすのに適していなかったこの場所に、コミュニティの取り組みで芸術が定着した。ヒンヨウル展望台から眺める影島の沖の海が美しい。  </ITEMCNTNTS>  <PLACE>ヒンヨウル文化村 </PLACE>  <SUBTITLE>ヒンヨウルで感じるスローな美学</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常時</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区</GUGUN\_NM>  <ADDR1>釜山影島区ヒンヨウルギル</ADDR1>  <HOMEPAGE\_URL />  <TITLE>ヒンヨウル文化村 </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85</LAT>  </item>  <item>  <MAIN\_TITLE>깡깡이 예술마을</MAIN\_TITLE>  <LNG>129.03255</LNG>  <MIDDLE\_SIZE\_RM1>車いす利用可能</MIDDLE\_SIZE\_RM1>  <UC\_SEQ>256</UC\_SEQ>  <USAGE\_AMOUNT>プログラムによって異なります。 </USAGE\_AMOUNT>  <CNTCT\_TEL>+82-51-418-3336</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120900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1号線南浦駅6番出口から徒歩18分  マウルバス：影島区2で大平洞下車  駐車：蓬萊洞、南港市場公営駐車場（有料）</TRFC\_INFO>  <HLDY\_INFO>毎週月曜日（ツアーなどの施設・イベント）</HLDY\_INFO>  <ITEMCNTNTS>影島橋を渡った先、チャガルチ市場の向かいの岸壁には、たくさんの船が停泊している。「世の中に直せない船はない」と言われた伝説的な修理・造船のメッカ、カンカンイ芸術村がある場所だ。「カンカンイ」とは、修理・造船所で船の表面のさびだらけの塗料や貝殻を金槌で叩いて剥がす「カンカン」という音に由来する。毎日、町 全体に「カンカン」という音が鳴り響いていた時代から、大平洞一帯は「カンカンイ芸術村」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  そのような由来から、そこで働いていたのは職人の男たちだったというイメージがあるが、実はそうでもない。一本のロープに命を託し、長年にわたって厳しい作業を繰り返してきたのは、大平洞のおばさんたちだった。子どもたちの世代には豊かな暮らしをさせてやりたいという一念で、難聴と耳鳴りに耐えながら黙々と造船所を守ってきた「鉄の女」たちだ。  造船所と言えば、磯の香りやうるさい金槌の音というイメージが強いが、カンカンイ芸術村は「芸術村」であるだけに、ユニークな特徴がある。造船所の機械音に包まれ、大きな装置が立ち並んでいた町では、数年前から都市再生プロジェクトが始まった。カンカンイ芸術村造成事業がスタートし、芸術家たちが町のいたるところにパブリックアート作品を設置したり、町の工作所、生活文化センター、街歩きツアー、遊覧船体験、船舶体験館などの施設やイベントにより、ここを訪れる観光客との交流を始めたのだ。  ツアーを申し込むと、町の解説ガイドと一緒に巡る街歩きツアーが楽しめるほか、遊覧船で巡る海上ツアーもできる。路地裏にどんな芸術家の作品があるか、探してみるのもおもしろい。町の博物館には、約100年にわたる修理・造船業に関する逸話、住民たちの暮らしが分かる映像、遺物、文書、芸術作品などが展示されている。  「釜山」と言えば海雲台や広安里が有名だが、釜山旧都心のストーリーツアーが楽しめる影島にも多彩な観光スポットがある。その中には、カンカンイ芸術村のような歴史と芸術が息づく町もある。釜山の近代文化が今なお残るスポット、カンカンイ芸術村のリアルな歴史を体験してみよう。  </ITEMCNTNTS>  <PLACE>カンカンイ芸術村</PLACE>  <SUBTITLE>歴史と芸術が共存する場所</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なるべく平日の昼間は避けてください。週末に訪れるか、統合ツアープログラムをご利用ください。  平日、週末10：00〜17：0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区</GUGUN\_NM>  <ADDR1>釜山広域市影島区大平北路(テピョンブクロ)36　カンカンイ案内センター</ADDR1>  <HOMEPAGE\_URL>http://kangkangee.com/index.php/englishpage\_about/</HOMEPAGE\_URL>  <TITLE>カンカンイ芸術村</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1209005\_thumbL</MAIN\_IMG\_THUMB>  <LAT>35.092648</LAT>  </item>  <item>  <MAIN\_TITLE>국립해양박물관</MAIN\_TITLE>  <LNG>129.08018</LNG>  <MIDDLE\_SIZE\_RM1>荷物預かり所（1、2階）、車いす無料レンタル、点字ブロック、点字案内板、盲導犬同伴可能、エレベーター、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多目的トイレ、4D映像館車いす席</MIDDLE\_SIZE\_RM1>  <UC\_SEQ>257</UC\_SEQ>  <USAGE\_AMOUNT>観覧無料（4D映像館と有料特別展示を除く）</USAGE\_AMOUNT>  <CNTCT\_TEL>+82-51-309-19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562750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1号線南浦駅6番出口→186、66番バスに乗り換え→国立海洋博物館下車  釜山シティツアーバス：釜山駅（ジャンボバス）→国立海洋博物館下車  駐車：国立海洋博物館駐車場（有料）</TRFC\_INFO>  <HLDY\_INFO>毎週月曜日</HLDY\_INFO>  <ITEMCNTNTS>釜山と言えば海、海と言えば釜山だが、韓国の海について深く知っている人は、果たしてどれだけいるだろうか。  世界中の海の物語が詰まった国立海洋博物館が、過去と現在、未来の海にいざなってくれる。  釜山の海を背にして建つ、大きな外観の建物が目に飛び込んでくる。水滴が跳ね上がる様子をモチーフした外観は、まるで銀河を横切る宇宙船のようだ。国立海洋博物館は、海の文化から歴史、科学、考古学に至るまでの専門的な資料が展示されており、良質の海洋体験プログラムを用意している韓国唯一の総合海洋博物館だ。  まずは、常設展示館がある3階に上がろう。入口から入ると、大型水槽にまず目を引かれる。大きなウミガメが頭上でゆっくりと泳ぐ姿に、子どもたちはすっかり夢中になるだろう。水槽のすぐ隣には、先人たちの海洋技術を垣間見ることのできる航海船舶、海に対する挑戦を続けてきた人々、海での暮らしを物語る伝統的な漁労などについて観覧できる常設展示館がある。ほぼ実物大に復元された朝鮮通信使の木船の前は、行列ができるほど人気のフォトスポットになっている。海洋生物の起源について知りたいなら海洋生物展示館に、海洋レジャーについてもっと知りたいなら海洋体験館に行こう。海がもっと身近になる楽しい体験が待っている。  常設展示館は、4階まで続いている。海洋産業に関する展示では、伝統的な海洋産業の歴史や海の生産性について知ることができる。深海探査や極地研究に関する展示は、未知の領域に関する疑問を解決してくれる。  次に、海が大好きな子どもたちと一緒に2階の子ども博物館に行ってみよう。子ども博物館は、子どもたちが直接操作して体験できる海洋体験スペース。様々なブースで時間を忘れて楽しい海の遊びが楽しめる。ピクニックルームもあり、お弁当持参の家族連れの来場者に大人気だ。  国立海洋博物館は、家族みんなで楽しめる特別な場所だ。  </ITEMCNTNTS>  <PLACE>国立海洋博物館</PLACE>  <SUBTITLE>海のこと、どれだけ知ってる？</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火〜日  国立海洋博物館  -平日09：00〜18：00  - 土曜日[9月〜4月]09：00〜19：00/[5月〜8月]09：00〜21：00  - 日曜日、公休日09：00〜19：00  -ソルラル‧秋夕(旧暦8月15日)の翌日、子どもの日、光復節 09:00～21:00  海洋図書館  - 09:00〜18:00  - 休館日：博物館休館日・公休日</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区</GUGUN\_NM>  <ADDR1>釜山市影島区海洋路(ヘヤンロ)301番ギル45</ADDR1>  <HOMEPAGE\_URL>https://www.knmm.or.kr/jpn/main/main.aspx</HOMEPAGE\_URL>  <TITLE>国立海洋博物館</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5627506\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728</LAT>  </item>  <item>  <MAIN\_TITLE>태종대</MAIN\_TITLE>  <LNG>129.0878</LNG>  <MIDDLE\_SIZE\_RM1>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多目的トイレ、盲導犬同伴可能、車いすリフト付きタヌビ列車の運行あり、車いす無料レンタル（正門の観光案内センター）</MIDDLE\_SIZE\_RM1>  <UC\_SEQ>258</UC\_SEQ>  <USAGE\_AMOUNT>無料（タヌビ列車は有料）</USAGE\_AMOUNT>  <CNTCT\_TEL>+82-51-405-8745</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082996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1号線釜山駅7番出口→66、88、101番バスに乗り換え→太宗台（太宗台温泉）下車  バス：8、30、66、88、101、186番で太宗台（太宗台温泉）下車  駐車：正門入口駐車場（バス専用）、第7駐車場、自由ランド駐車場（有料）  </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緑豊かな森を歩きながら、青い海が一望できる。長い間波に削られて様々な形になった岩の海岸が演出する神秘的な風景を楽しめる、釜山・影島南端に位置する太宗台。「太宗台」の地名は、美しい景色に心奪われた新羅の太宗武烈王が、ここで弓術を楽しんだことに由来するとされる。青い海に囲まれた奇岩怪石、豊かな緑を満喫できる太宗台は、韓国有数の旅行コースでもある。  観光客のほとんどが「タヌビ列車」を利用する。かわいい外観のタヌビ列車は、太宗台遊園地を循環する交通手段。正門の観光案内センターから5分ほど歩くと、タヌビ列車の切符売り場と乗り場がある。様々な割引や特典があるので、該当するものがあるかチェックしてみよう。循環道路のあちこちにある停車地点で自由に乗り降りできるので、快適な観光が楽しめる。緑豊かな木のトンネルをゆっくり歩いてみるのもいい。太宗台は循環道路と散策路がきちんと整備されているので、スニーカーでも問題ない。  テウォン砂利広場と南港眺望地を過ぎ、タヌビ列車の最初の停車地点である展望台休憩所に到着する。ほとんどの人はここで下車する。太宗台観光で絶対に見逃せないビューポイントで、最高の写真が撮れるスポットだ。展望台からは、五六島はもちろん、天気の良い日には対馬も見える。展望台の階段の下には、1906年から100年間一度も灯りが消えたことのない影島灯台がある。2004年に「SEE＆SEAギャラリー」、展望台、自然史展示室、カフェ「青い海」などが入る海洋文化スペースに生まれ変わった。灯台の下にある神仙岩には、海に出たきり戻ってこない夫を待つ妻が、悲しみのあまり石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伝説が伝わる。  太宗台は、海が一望できる展望ポイントだけでなく、海岸の砂利広場につながる階段の散策路も整備されている。どんどん新しくなっていく風景にワクワクしてくる。都心からそれほど離れていないのに、まだここには素朴な魅力が残っているようだ。  </ITEMCNTNTS>  <PLACE>太宗台遊園地</PLACE>  <SUBTITLE>家族、恋人、友人と行ってみよう</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毎日  夏季3〜10月（04：00〜24：00）  冬季11〜2月（05：00〜24：00）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区</GUGUN\_NM>  <ADDR1>釜山広域市影島区展望路(チョンマンロ)24</ADDR1>  <HOMEPAGE\_URL>https://bit.ly/3dydJIr</HOMEPAGE\_URL>  <TITLE>太宗台遊園地</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0829962\_thumbL</MAIN\_IMG\_THUMB>  <LAT>35.052643</LAT>  </item>  <item>  <MAIN\_TITLE>죽성성당</MAIN\_TITLE>  <LNG>129.24864</LNG>  <MIDDLE\_SIZE\_RM1>車いす利用可能</MIDDLE\_SIZE\_RM1>  <UC\_SEQ>259</UC\_SEQ>  <USAGE\_AMOUNT>無料</USAGE\_AMOUNT>  <CNTCT\_TEL />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182993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バス：海雲台温泉交差点バス停で急行1003バス→機張聖堂下車→マウルバス6番に乗り換え→豆湖村下車  マウルバス：機張郡庁バス停でマウルバス6番→豆湖村下車  駐車：竹城聖堂近隣駐車場（有料）</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東海のエメラルド色をそのままたたえる機張の海は、有名な観光スポット。天候にかかわらず楽しめるドライブスポットや、美しい景色が楽しめるロマンチックなカフェを求めて、大勢の観光客が機張を訪れる。機張竹城聖堂も、絶対に見逃せない観光コースの一つだ。  釜山市機張郡竹城里にある竹城聖堂は、小さな漁村にあるせいで独特な雰囲気が漂う。中世時代の漁村をそのまま持ってきたような風景は、まるで一枚の絵画を見ているようだ。岩にぶつかって砕ける波が、聖堂の赤い屋根と鮮明なコントラストをなして、人々の目をくぎ付けにする。  聖堂の鐘がいつ鳴ってもおかしくないような佇まいをしているが、実は、ここは2009年にSBSのドラマ『ドリーム』を撮影するために建てられたセットだ。ドラマを覚えている人はもう少なくなったが、しっかり作り込まれたこのセットは残り、機張を代表する観光スポットになった。  竹城聖堂で一番人気のある場所は、まるで額縁のフレームをそのまま持ってきたようなフォトゾーン。フレームの中に収まる青い海と空が、とても美しい背景を演出してくれる。広々とした海を眺めながら自分だけの時間を持つのもよし、恋人とロマンチックな雰囲気を味わってみるのもいい。 聖堂周辺の景色も、見逃せない絶景スポットだ。 聖堂の隣にある奇妙な形をした「ノロク岩」は、大きな海を全身で感じられる天恵のスポット。海雲台や広安里とは違う、小さな海辺の町でのどかな雰囲気を感じたい人にはうってつけのスポットだ。 聖堂内部はギャラリーになっていて、運が良ければ展示会を観覧できるかも知れない。  聖堂から徒歩10分のところにある竹城里の海松も、ユニークなスポットの一つだ。この海松は5本の木が集まって一本の大きな木のように見える老松で、樹齢約250年〜300年と推定されている。昔から豊漁祭が行われていた場所で、氏神を祀る国師堂が残っており、民俗学的な価値も高い。垂れ下がった老松の枝は、まるで手招きしているかのようだ。  青い空、果てしなく広がる海は、竹城聖堂の魅力を倍増させている。涼しい風と心地よい波の音に、心もからだも癒される。赤く尖った屋根の聖堂と大自然が織りなすこの空間は、忙しい毎日を生きる現代人にとっての、小さな楽園なのかもしれない。  </ITEMCNTNTS>  <PLACE>竹城聖堂</PLACE>  <SUBTITLE>ドラマのセットが大変身</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毎日  常時</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機張郡</GUGUN\_NM>  <ADDR1>釜山広域市機張郡機張邑竹城里(チュクソンリ) 134-7</ADDR1>  <HOMEPAGE\_URL />  <TITLE>竹城聖堂</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1829937\_thumbL</MAIN\_IMG\_THUMB>  <LAT>35.241013</LAT>  </item>  <item>  <MAIN\_TITLE>아홉산 숲</MAIN\_TITLE>  <LNG>129.17046</LNG>  <MIDDLE\_SIZE\_RM1 />  <UC\_SEQ>260</UC\_SEQ>  <USAGE\_AMOUNT>5,000ウォン（5歳以上）</USAGE\_AMOUNT>  <CNTCT\_TEL>+82-51-721-9183</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564573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1号線老圃駅 → マウルバス2-3番に乗り換え → 薇洞村下車  駐車：アホプ(九)山森駐車場</TRFC\_INFO>  <HLDY\_INFO>毎週月曜日</HLDY\_INFO>  <ITEMCNTNTS>日帝強占期、解放、そして戦争と工業化の時代を経ても一般開放されず、自然そのままの姿が残されていた森。  400年間世間に公開されることのなかったここは、釜山・機張郡に位置するアホプ山森だ。  「アホプ(九)山森」の名は、九つの谷があることに由来する。  この森は、2014年に映画『群盗』のロケ地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り、2016年に400年間森を管理してきた所有者が一般公開を決定し、訪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長らくグリーンベルトと水源保護区域に指定されていたため、豊かな自然環境と生態をそのまま留めている。  チケット売り場を過ぎれば、もうアホプ山への旅は始まっている。散策路には方向案内板が整備されており、矢印を辿って進めば道に迷う心配はない。アホプ山森の中には、竹の群落地をはじめ金剛松、ヒノキ、クヌギなど様々な樹木があり、壮大な森の雰囲気が感じられる。そのうち116本の樹木が、保護樹木に指定されている。  様々な樹木の中で、代表的なものはなんといっても竹の群落地である。アホプ山には二カ所の竹林があり、最初に出てくるのがクッの儀式が行われる場所だった孟宗竹林である。鬱蒼とした竹林の中から空を見上げると、竹の隙間から差し込む日差しに目がくらむ。二つ目の竹林は、竹の並木道とも呼ばれる平地竹林である。小道の両側に竹がびっしりと生えており、日差しさえ差してこない。そのため、落ち着いて散策できるパワースポットだ。  長らく人の手が入っていないひときわ高くそびえ立つ木々の間を過ぎて入口に戻ると、森を管理する家門の宗宅「観薇軒」に出る。「ワラビのような小さな草にも目を配る」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た名前の宗宅は、釘を一切使用していない伝統様式の韓屋造りだ。今でも薪のかまどを使っているこの家には、森を管理する家族が暮らしている。  アホプ山森散策路を探訪すると、約1、2時間かかる。鼻先をかすめる木の香り、耳に響く鳥の鳴き声、涼しい日陰が、疲れた心を癒してくれる。週末、アホプ山森の古木に囲まれてストレスを吹き飛ばしてみては。  </ITEMCNTNTS>  <PLACE>アホプ(九)山森</PLACE>  <SUBTITLE>竹の家、機張のアホプ山森</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火〜日  平日、週末09:00～18:00（最終入場時刻16時30分）</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機張郡</GUGUN\_NM>  <ADDR1>釜山広域市機張郡鉄馬面薇洞(ミドン)ギル37-1</ADDR1>  <HOMEPAGE\_URL />  <TITLE>アホプ(九)山森</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5645736\_thumbL</MAIN\_IMG\_THUMB>  <LAT>35.287334</LAT>  </item>  <item>  <MAIN\_TITLE>해동용궁사 </MAIN\_TITLE>  <LNG>129.22346</LNG>  <MIDDLE\_SIZE\_RM1>多目的トイレ</MIDDLE\_SIZE\_RM1>  <UC\_SEQ>261</UC\_SEQ>  <USAGE\_AMOUNT>無料</USAGE\_AMOUNT>  <CNTCT\_TEL>+82-51-722-7744</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9082338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2号線海雲台駅7番出口→181、100、海雲台9番バスに乗り換え→海東龍宮寺下車  東海線オシリア駅1番出口→オシリア駅バス停139番バスに乗り換え→海東龍宮寺下車  釜山シティツアーバス：釜山駅（レッドライン）→海雲台海水浴場バス乗り換え（ブルーライン）→海東龍宮寺下車  駐車：海東龍宮寺駐車場（有料）</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機張の沖から押し寄せる波の音。素敵な海岸の絶景。目の前に広がる果てしない海。  海、波、風、そして息を呑むような絶景が待っている海東龍宮寺に行ってみよう。  釜山・機張の侍朗里海岸にある海東龍宮寺は、晸庵(チョンアム)和尚が海辺で龍に乗って空を飛ぶ観世音菩薩の夢を見たことから名付けられたという。山と海が接するところに、海東龍宮寺が一枚の絵のように佇んでいる。  境内に向かって進むと、最初に出てくる十二支像。自分の干支の動物と一緒に写真が撮れる。十二支は、十二方位の土地を守り、厄除けをして幸運をもたらす守護神のような存在だ。一柱門をくぐって松林の間に伸びる108階段を上ぼると、青い海に囲まれた海東龍宮寺が現れる。お寺とつながっている龍文橋では、人々が願いを込めてコインを投げる光景をよく目にする。これは、龍宮寺では熱心に祈ると一つの願い事が必ず叶うという伝説があるためだ。  韓国で最も美しい寺院と言われるように、境内のどこからでも海が望めるので、どこに立ってもフォトゾーンになる。開けた海のパノラマを満喫したければ、大雄殿の隣にある階段を上ろう。優しい笑顔を浮かべる海水観音大仏や、目下に広がる青い海と一緒に素敵な写真を残すことができる。  押し寄せる波と奇岩怪石が演出する海岸の絶景を満喫したいなら、海岸散策路に行ってみよう。空と海を分ける水平線の果てまでも見えるヘドジ岩は、海東龍宮寺最高の絶景スポット。青い海を観ながら歩く「ヘパラン道」第1コースになっている海岸散策路もオススメだ。  </ITEMCNTNTS>  <PLACE>海東龍宮寺 </PLACE>  <SUBTITLE>海の展望の聖地、海東龍宮寺</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毎日  05:00〜日没まで</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機張郡</GUGUN\_NM>  <ADDR1>釜山広域市機張郡機張邑龍宮(ヨングン)ギル86</ADDR1>  <HOMEPAGE\_URL>http://www.yongkungsa.or.kr/jpn/01/01.php</HOMEPAGE\_URL>  <TITLE>海東龍宮寺</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90823385\_thumbL</MAIN\_IMG\_THUMB>  <LAT>35.188583</LAT>  </item>  <item>  <MAIN\_TITLE>임랑해수욕장</MAIN\_TITLE>  <LNG>129.26451</LNG>  <MIDDLE\_SIZE\_RM1>車いす利用可能、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多目的トイレ</MIDDLE\_SIZE\_RM1>  <UC\_SEQ>262</UC\_SEQ>  <USAGE\_AMOUNT>無料</USAGE\_AMOUNT>  <CNTCT\_TEL>+82-51-709-40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409380962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2号線海雲台駅→180番バスに乗り換え→林浪交差点下車  バス：37、180、188番で林浪交差点下車  マウルバス：機張郡9、機張郡3番で林浪交差点下車  </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夏と言えば海、海と言えば釜山だが、まだ観光客には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海水浴場がある。  釜山市民に愛されている、機張郡二大海水浴場の一つである林浪海水浴場だ。  聞こえも優しい「林浪（イムラン）」という地名は、美しい「松林」と月光に照らされて輝く銀色の「波」に由来する。林浪海水浴場の砂浜は1km以上も続いており、砂の色がとても明るい。初めて来た人は、間違いなくこの白い砂浜が気に入ってしまうはず。  夏になると、海水浴だけでなく、ビーチで無料で観覧できる「機張林浪サマーミュージックフェスティバル」をはじめ、海辺大学歌謡祭や子ども童謡大会などのイベントが開かれる。  海岸には、映画『ザ・キング』のロケ地もある。映画の中でチョ・インソンの別荘として登場した家だ。砂浜の目の前に佇んでいて、静かな海辺の町によく似合う。  夏になると、釜山の他のビーチと同じで、林浪海水浴場も避暑客で賑わう。  比較的波が高いので、サーフィンを楽しむ人も増えている。水遊びやキャンプを楽しむための様々な設備が備わっていて、シャワールームや更衣室があり、用具のレンタルもできる。大型の海水浴場とは違い、納涼床や部屋を借りる場合が多い。海水浴場の近くには民宿、ペンション、刺身屋もあるので、家族連れはもちろん、恋人や友人と一緒に来ても楽しめる。  林浪海水浴場の最大の魅力ポイントは「夜」。ここの夜は、他のどの海よりも美しい。ネオンサインがきらめく夜景を想像した人は少しがっかりするかも知れないが、砕ける波を照らす銀色の月光を目にすると、話は変わってくる。波が押し寄せる度に砕ける泡沫を月が照らし、夜の海をロマンチックに演出してくれる。  また、林浪海水浴場の近くには機張四大古刹の長安寺と妙観音寺がある。静かな海岸の道を歩き、近くの山寺を巡る旅をすれば、心も癒されるはずだ。  真昼の青い海と爽やかな潮風、古刹で体験するタイムスリップ、そして、夜の海の散策。  ネオンサインがきらめく都心ではなく、波を照らす月の光の美しさを満喫したいなら、林浪海水浴場がおすすめだ。  </ITEMCNTNTS>  <PLACE>林浪海水浴場 </PLACE>  <SUBTITLE>白い砂浜を照らす銀色の月光</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開場期間：毎年7月1日〜8月31日  09：00〜18：00（開場期間中の遊泳可能時間）</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機張郡</GUGUN\_NM>  <ADDR1>釜山広域市機張郡長安邑カプコルギル</ADDR1>  <HOMEPAGE\_URL />  <TITLE>林浪海水浴場</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4093809621\_thumbL</MAIN\_IMG\_THUMB>  <LAT>35.31905</LAT>  </item>  <item>  <MAIN\_TITLE>문화공감 수정, 초량1941</MAIN\_TITLE>  <LNG>129.04265</LNG>  <MIDDLE\_SIZE\_RM1 />  <UC\_SEQ>264</UC\_SEQ>  <USAGE\_AMOUNT>メニュー参照</USAGE\_AMOUNT>  <CNTCT\_TEL>水晶：+82-51-441-0004  草梁1941：+82-51-462-7774</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417111584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文化共感 水晶  都市鉄道：1号線釜山鎮駅1番出口から徒歩7分  バス：103番で慶南女子中学校下車  59、67、81、167番で古館入口下車  釜山駅からタクシー基本料金  草梁1941  バス：22、38、52、86、186番で金水寺下車  釜山駅からタクシー基本料金</TRFC\_INFO>  <HLDY\_INFO>文化共感 水晶　ソルラル、秋夕休業  草梁1941 毎週月曜日</HLDY\_INFO>  <ITEMCNTNTS>東区は、釜山の近現代史にまつわる物語がいたるところに残る場所。様々な物語のある道を辿って行くと、「文化共感 水晶」が現れる。  文化共感 水晶の元々の名前は「貞蘭閣」だ。日帝強占期の1943年に建てられた日本式家屋で、独特な魅力があるため数々の映画やプロモーションビデオの撮影が行われた。IUの『夜の手紙』とAKMUの『思春期』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映画『悪いやつら』、『将軍の息子』などのロケ地となった。  周辺のモダンな住宅とは異なる雰囲気の「水晶」の庭に足を踏み入れると、照りつける日差しと豊かな緑が演出する庭の風景が楽しめる。店内に入る前に、しばらく庭でひと休みするのもいい。まるで過去にタイムスリップをしたような趣のある雰囲気を満喫できる。  建物内部は、1階と2階に分かれた伝統喫茶となっている。静かな廊下を進むと座卓テーブルが用意された部屋が現れ、障子越しにのどかな風景が楽しめる。  文化共感 水晶から釜山駅に向かって20分ほど歩くと、「草梁1941」が出てくる。「草梁1941」は、地域名と家屋が建てられた年度を組み合わせて付けられた名前。カフェの前に広がる庭には、大きな切り株もある。風が吹くと、色褪せた軒下で揺らぐ風鈴の音が耳をくすぐる。  カフェに入ると、アンティークなテーブルと大きな窓が目に飛び込んでくる。まるで大韓帝国時代の京城にいるかようだ。ユニークな小物があちこちに飾られていて、オーナーのセンスも垣間見える。草梁1941の代表メニューは牛乳を使った多彩なドリンクで、可愛いガラス瓶入りのバニラミルクや紅茶ミルクなどがある。  散策するのにうってつけの午後、近代の香りが感じられる日本式家屋で感性あふれるカフェツアーをしたければ、草梁1941と文化共感 水晶をオススメしたい。  </ITEMCNTNTS>  <PLACE>文化共感 水晶・草梁1941</PLACE>  <SUBTITLE>近代木造建築とゆっくり楽しむ草梁カフェツアー</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文化共感 水晶 毎日09：00〜18：00  草梁1941 火〜日11：00〜19：00  </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東区</GUGUN\_NM>  <ADDR1>文化共感 水晶：釜山広域市東区虹谷路(ホンゴクロ)75  草梁1941：釜山広域市東区茫洋路(マンヤンロ)533-5</ADDR1>  <HOMEPAGE\_URL />  <TITLE>文化共感 水晶・草梁1941</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4171115847\_thumbL</MAIN\_IMG\_THUMB>  <LAT>35.125793</LAT>  </item>  <item>  <MAIN\_TITLE>일광해수욕장</MAIN\_TITLE>  <LNG>129.2336</LNG>  <MIDDLE\_SIZE\_RM1>点字ブロック、車いす使用者用駐車施設、多目的トイレ</MIDDLE\_SIZE\_RM1>  <UC\_SEQ>265</UC\_SEQ>  <USAGE\_AMOUNT>無料</USAGE\_AMOUNT>  <CNTCT\_TEL>+82-51-709-40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4335323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鉄道：2号線海雲台駅→1006、180番バスに乗り換え→日光海水浴場入口下車  バス：188、180、1006番で日光海水浴場入口下車  マウルバス：機張郡2、機張郡8-1、機張郡9、機張郡3、機張郡8番で日光海水浴場入口下車  </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釜山市民に愛される海、日光海水浴場。  機張八景の一つに選ばれるほど美しい日光海水浴場には、かつて海岸線に沿ってヒノキ林があったとされ、高麗時代から鄭夢周(チョン・モンジュ)などの著名な人物が訪れた絶景の名所だったと言われている。  日光海水浴場のある日光面三聖里の地名は、「三聖台」に由来する。三聖台は、「セムソクテ」という古言にルーツを持つ言葉で、「セム」は湧水、「ソク」は船をつなぎ止めておく場所を意味したそうだ。現在は、砂浜の真ん中にある塚が「三聖台」と呼ばれている。  日光海水浴場は、1953年に発表された呉永寿（オ・ヨンス）の短編小説『ケンマウル(干潟の村)』の舞台になったほど、釜山の漁村を代表する象徴性を持つ場所でもある。1965年には、キム・スヨン監督による映画『ケンマウル』もここで制作された。小説『ケンマウル』の主人公は、海辺の町で生まれ育った海女の娘のヘスンだ。日帝強占期を舞台に、厳しい生活に堪えられずに海を去ったものの、結局は漁村に戻ってきてしまう女性の悲しい人生を描いた作品である。  小説『ケンマウル』と映画『ケンマウル』の反響は、1995年にビーチフェスティバルに発展した。作品をテーマに「マダン劇」の公演が開かれる「ケンマウルマダン劇フェスティバル」は、毎年夏に開かれる。海女をテーマにした韓国唯一の海の祭りだ。イベント期間中は、韓国演歌コンサート、海女さんの潜水体験、機張の伝統的な漁の方式である引き網体験などができる。  日光海水浴場は他の海水浴場に比べて水深が浅く、波も比較的穏やかなので、子ども連れの避暑客に人気が高い。他の海水浴場とは違い、今でも「納涼床」の文化が残っており、砂浜でバーベキューができるのもユニークだ。  日光海水浴場の魅力は、他にもたくさんある。マリンレジャーの話題のスポットとして人気急上昇中の松亭海水浴場に次ぐ新たなマリンレジャースポーツの名所として脚光を浴びている。ジェットスキー、フライフィッシュ、バナナボート、ウェイクボード、ディスコボートなど多彩なコンテンツが用意されており、若者たちから注目されている。  昔ながらの漁村の風景から、新しいマリンレジャースポーツの体験まで楽しめる。釜山の海の過去と現在を同時に楽しめる日光海水浴場。過去と未来が共存する日光海水浴場の魅力は、一年中楽しめる。  </ITEMCNTNTS>  <PLACE>日光海水浴場</PLACE>  <SUBTITLE>トレンディなマリンスポーツから昔ながらの風景まで</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開場期間：毎年7月1日〜8月31日  09：00〜18：00（開場期間中の遊泳可能時間）</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機張郡</GUGUN\_NM>  <ADDR1>釜山広域市機張郡日光面三聖(サムソン)3ギル17</ADDR1>  <HOMEPAGE\_URL />  <TITLE>日光海水浴場</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43353231\_thumbL</MAIN\_IMG\_THUMB>  <LAT>35.260025</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08</totalCount>  </body>  </response> |

4) [부산명소 중문 간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4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명소 중문 간체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명소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중문 간체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getAttractionZhs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107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콘텐츠ID | 11 | 1 | 255 | 콘텐츠ID |
| MAIN\_TITLE | 콘텐츠명 | 300 | 0 | 흰여울문화마을 | 콘텐츠명 |
| GUGUN\_NM | 구군 | 100 | 0 | 影岛区 | 구군 |
| LAT | 위도 | 20 | 0 | 35.07885 | 위도 |
| LNG | 경도 | 20 | 0 | 129.04402 | 경도 |
| PLACE | 여행지 | 300 | 0 | 白川文化村 | 여행지 |
| TITLE | 제목 | 300 | 0 | 白川文化村 | 제목 |
| SUBTITLE | 부제목 | 300 | 0 | 在白川街上的缓慢美学 | 부제목 |
| ADDR1 | 주소 | 200 | 0 | 釜山广域市 影岛区白川街 | 주소 |
| CNTCT\_TEL | 연락처 | 200 | 0 | +82-51-419-4067 | 연락처 |
| HOMEPAGE\_URL | 홈페이지 | 200 | 0 | http://huinnyeoul.co.kr | 홈페이지 |
| TRFC\_INFO | 교통정보 | 500 | 0 | 都市铁路 1号线南浦站6号出口 → 换乘7、71、508路巴士 → 在瀛仙洞白莲寺站下车  巴士 乘坐7、71、508路巴士，在瀛仙洞白莲寺站下车  釜山市区旅游巴士 釜山站（珍宝巴士） → 在白川文化村站下车  停车 绝影海岸散步路入口公营停车场（收费） | 교통정보 |
| USAGE\_DAY | 운영일 | 500 | 0 |  | 운영일 |
| HLDY\_INFO | 휴무일 | 500 | 0 |  | 휴무일 |
| USAGE\_DAY\_WEEK\_AND\_TIME | 운영 및 시간 | 500 | 0 | 常時 | 운영 및 시간 |
| USAGE\_AMOUNT | 이용요금 | 500 | 0 | 免费 | 이용요금 |
| MIDDLE\_SIZE\_RM1 | 편의시설 | 500 | 0 | 珍宝巴士配备轮椅升降机、票价优惠50%、残疾人停车场（绝影海岸散步路公营停车场，收费） | 편의시설 |
| MAIN\_IMG\_NORMAL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상세내용 | 1000 | 0 | 在绝影海岸散步路的陡壁之上，映入眼帘的是独特的村庄风景。在海岸绝壁的尽头，沿着大海一路延伸的小巷里，小房子鳞次栉比。这里既是难民们凄凉生活的起点，也是与现在村民们一起生活的文化村共同体——白川文化村的所在地。  白川街作为釜山原来最具代表性的城市中心，因从蓬莱山脚下蜿蜒流淌的水柱与白雪纷飞的样子相似从而得名。2011年12月，将老旧的房屋进行改造后，现已成为一座能够感受影岛生活的独具匠心的文化艺术村。  估计即使是没有看过电影《辩护人》的人也能背诵这部影片的经典台词，因为在镇宇家的围墙上写得很大。很多游客在影岛的头号旅行认证照就是镇宇家的围墙。而围墙所在的地方就是白川文化村的起点——村庄咨询处。白川街共有14条胡同，有精致的小咖啡馆、工坊、独立书店等。漫步在小巷，海景映入眼帘，透过石缝间盛开的不知名的植物，可以感受难得的闲暇。在白川街上不可或缺的路线之一当然是“白川店铺”。面对汪洋大海，边呼呼吹着热气边吃的方便面，可谓是人间美味。通过此次旅途，可以让疲惫的内心照入一丝平和之光。路的尽头再次与绝影海岸散步路连接，会和在绝壁和地面间奋力攀上攀下的游客们相遇。  沿着村庄的围墙行走的白川街，在现在的绝影路出现之前，曾是通往太宗台唯一的一条路。听着海浪声，一路上的视线会忍不住总是停留在海上。大大小小的船只渐渐浮起的场景很有异国风情。这是进入釜山港的船舶抛锚后暂时停留的地方，是属于锚泊地特有的风景，也是只有在影岛才能看到的独特景观。  靠近大海的悬崖峭壁，在村庄共同体的努力下，使无人居住的地方绽放出了艺术之魂。在白川观景台中看到影岛前海不禁会让人心生感慨。  现在，这里，我们  白川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getAttractionZhs?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흰여울문화마을</MAIN\_TITLE>  <LNG>129.04402</LNG>  <MIDDLE\_SIZE\_RM1>珍宝巴士配备轮椅升降机、票价优惠50%、残疾人停车场（绝影海岸散步路公营停车场，收费）</MIDDLE\_SIZE\_RM1>  <UC\_SEQ>255</UC\_SEQ>  <USAGE\_AMOUNT>免费</USAGE\_AMOUNT>  <CNTCT\_TEL>+82-51-419-4067</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 1号线南浦站6号出口 → 换乘7、71、508路巴士 → 在瀛仙洞白莲寺站下车  巴士 乘坐7、71、508路巴士，在瀛仙洞白莲寺站下车  釜山市区旅游巴士 釜山站（珍宝巴士） → 在白川文化村站下车  停车 绝影海岸散步路入口公营停车场（收费）</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在绝影海岸散步路的陡壁之上，映入眼帘的是独特的村庄风景。在海岸绝壁的尽头，沿着大海一路延伸的小巷里，小房子鳞次栉比。这里既是难民们凄凉生活的起点，也是与现在村民们一起生活的文化村共同体——白川文化村的所在地。  白川街作为釜山原来最具代表性的城市中心，因从蓬莱山脚下蜿蜒流淌的水柱与白雪纷飞的样子相似从而得名。2011年12月，将老旧的房屋进行改造后，现已成为一座能够感受影岛生活的独具匠心的文化艺术村。  估计即使是没有看过电影《辩护人》的人也能背诵这部影片的经典台词，因为在镇宇家的围墙上写得很大。很多游客在影岛的头号旅行认证照就是镇宇家的围墙。而围墙所在的地方就是白川文化村的起点——村庄咨询处。白川街共有14条胡同，有精致的小咖啡馆、工坊、独立书店等。漫步在小巷，海景映入眼帘，透过石缝间盛开的不知名的植物，可以感受难得的闲暇。在白川街上不可或缺的路线之一当然是“白川店铺”。面对汪洋大海，边呼呼吹着热气边吃的方便面，可谓是人间美味。通过此次旅途，可以让疲惫的内心照入一丝平和之光。路的尽头再次与绝影海岸散步路连接，会和在绝壁和地面间奋力攀上攀下的游客们相遇。  沿着村庄的围墙行走的白川街，在现在的绝影路出现之前，曾是通往太宗台唯一的一条路。听着海浪声，一路上的视线会忍不住总是停留在海上。大大小小的船只渐渐浮起的场景很有异国风情。这是进入釜山港的船舶抛锚后暂时停留的地方，是属于锚泊地特有的风景，也是只有在影岛才能看到的独特景观。  靠近大海的悬崖峭壁，在村庄共同体的努力下，使无人居住的地方绽放出了艺术之魂。在白川观景台中看到影岛前海不禁会让人心生感慨。  现在，这里，我们  白川  </ITEMCNTNTS>  <PLACE>白川文化村</PLACE>  <SUBTITLE>在白川街上的缓慢美学</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每天  全年</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岛区</GUGUN\_NM>  <ADDR1>釜山广域市 影岛区白川街</ADDR1>  <HOMEPAGE\_URL />  <TITLE>白川文化村</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85</LAT>  </item>  <item>  <MAIN\_TITLE>깡깡이 예술마을</MAIN\_TITLE>  <LNG>129.03255</LNG>  <MIDDLE\_SIZE\_RM1>轮椅可通行</MIDDLE\_SIZE\_RM1>  <UC\_SEQ>256</UC\_SEQ>  <USAGE\_AMOUNT>依项目而异</USAGE\_AMOUNT>  <CNTCT\_TEL>+82-51-418-3336</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120900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 1号线南浦站（6号出口）步行18分钟  居民区小巴士 影岛区2路巴士，大平洞站下车  停车 蓬莱洞、南港市场公营停车场（收费）</TRFC\_INFO>  <HLDY\_INFO>每周一（旅游等设施）</HLDY\_INFO>  <ITEMCNTNTS>穿过影岛大桥，在札嘎其市场对面的码头满满停泊着很多船。这里就是传闻世上没有修理不了的船的大名鼎鼎的修理造船发祥地，也是奚琴（GANG-GANG）艺术村的所在地。GANG-GANG是在修理造船厂里用锤子敲掉船表面生锈的油漆或贝壳时会发出“GANG-GANG”的声音而由此得名。从整个村庄从未停止过“GANG-GANG”声音的那时起，大平洞就被称为了奚琴（GANG-GANG）艺术村。  也许是因为“奚琴（GANG-GANG）艺术村”的由来，原以为发出“GANG-GANG”声音的劳动者是男性技术工人，但其实不是。把身体交付给一根绳索，在漫长的岁月里，完成这艰难劳动的人不是别人而是大平洞的大婶们。 为了让子女能脱离贫困，战胜失聪或失明的危险，默默坚守着造船厂的“铁娘子”们。  说到造船厂，虽然大部分人可能会以为只能闻到大海的味道和听到“GANG-GANG”的声音，但从奚琴艺术村的名字中带着“艺术村”这三个字，就可看出一定有专属于它的特色。几年前开始，在无法分辨造船厂的机械声和不知道具体高度的机器比比皆是的村庄里开始了城市再生工程。以“奚琴艺术村建设项目”为名，艺术家们在村中各处设置了公共艺术品，并通过村庄工作室、生活文化中心、乡村旅游、游览船体验、船舶体验馆等设施，开始了与来访村庄游客的沟通。  如果申请综合路线，不仅可以与村庄解说员一起体验生动的胡同之旅，还可以体验游览船的海上之旅。每当进入一个胡同，就开始寻找又会有怎样的艺术家作品，也是别有一番情趣。村博物馆里陈列着100多年积累的有关修理造船业的故事和居民的生活情况，通过影像、文物、文字、艺术作品等多种媒介，能够让游客一目了然。  提到“釜山”，虽然有海云台、广安里等，但是在釜山老城区，展开故事之旅的影岛也有多样的看点、美食和趣味活动，其中，也有像奚琴艺术村一样历史和艺术存活着的村庄。釜山近代文化的现在进行时，来体验一下奚琴艺术村鲜活的历史吧。  </ITEMCNTNTS>  <PLACE>奚琴艺术村</PLACE>  <SUBTITLE>历史与艺术共存的地方</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希望尽量避开周一至周五白天，在周末游玩或使用综合旅游项目服务。  周一~周五、周末 10:00~17:0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岛区</GUGUN\_NM>  <ADDR1>釜山广域市影岛区大平北路36 奚琴服务中心</ADDR1>  <HOMEPAGE\_URL>http://kangkangee.com/index.php/englishpage\_about/</HOMEPAGE\_URL>  <TITLE>奚琴艺术村</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1209005\_thumbL</MAIN\_IMG\_THUMB>  <LAT>35.092648</LAT>  </item>  <item>  <MAIN\_TITLE>국립해양박물관</MAIN\_TITLE>  <LNG>129.08018</LNG>  <MIDDLE\_SIZE\_RM1>物品存放处（1、2楼）、轮椅免费租赁、盲道砖、盲文指示牌、导盲犬陪同出入、电梯、残疾人停车场、残疾人卫生间、4D影像馆内轮椅坐席</MIDDLE\_SIZE\_RM1>  <UC\_SEQ>257</UC\_SEQ>  <USAGE\_AMOUNT>门票免费（但不包括4D影像馆、特别收费展览）</USAGE\_AMOUNT>  <CNTCT\_TEL>+82-51-309-19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562750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1号线南浦站6号出口→换乘186、66路巴士→国立海洋博物馆下车  釜山市区旅游巴士 釜山站(大型巴士)→ 国立海洋博物馆下车  停车 国立海洋博物馆停车场(收费) </TRFC\_INFO>  <HLDY\_INFO>每周一</HLDY\_INFO>  <ITEMCNTNTS>虽说提到釜山就会想到大海，提到大海就会想到釜山，但我们对韩国的海洋到底又了解多少呢?  开启世界所有海洋故事起点的国立海洋博物馆为我们介绍海洋的过去、现在和未来。  以釜山的前海为背景，拥有宏伟外观的建筑物映入人们的眼帘。把跳跃的水滴形象化的外形犹如横跨银河系的宇宙飞船。国立海洋博物馆内陈设着有关海洋文化、历史、科学以及考古学等专业资料，是提供高水平海洋体验项目的韩国唯一一个综合海洋博物馆。  让我们从设有常设展览馆的3楼开始探访之旅。刚进入门口就映入眼帘的大型水族馆。巨大的海龟在头顶悠然自得地游来游去，如同吸引孩子们聚集在水族馆前的魔术师。水族馆旁边则是能够一目了然地了解到韩国祖先们的海洋技术的航海船舶、无畏的向大海发起挑战的航海人、在海上生活的必备传统捕捞道具等的常设展览馆。复原至与实物大小相似的朝鲜通信使木船前面是非常受欢迎的拍照区，需要排队等候。如果想了解有趣的海洋生物的起源，可以参观海洋生物展览馆。如果想要满足对海洋休闲运动的好奇心，可以去海洋体验馆。与大海亲近的愉快体验正在等待大家的到来。  常设展览馆继续延伸至4楼。海洋产业的展览揭示了传统的海洋产业历史和海洋生产力，对深海勘探和极地研究的展览则解开了人们对未知领域的疑问。  现在是与热爱海洋的孩子们一起参观2楼儿童博物馆的时间。儿童博物馆是孩子们可以自己操作和体验的海洋体验空间。在展位各处，沉浸在有趣的海洋游戏里的孩子们会忘却时间的流走。这里设有专门的野餐室，对于以家庭为单位携带盒饭的游客来说，是最受欢迎的地方。  想要与家人在特别的地方度过？当然是国立海洋博物馆。  </ITEMCNTNTS>  <PLACE>国立海洋博物馆</PLACE>  <SUBTITLE>对于海洋，你了解多少?</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周二~周日  国立海洋博物馆  -周一~周五 09:00~18:00  -周六 [9月~4月] 09:00~19:00 / [5月~8月] 09:00~21:00  -周日、公休日 09:00~19:00  -春节‧中秋节次日、儿童节、光复节 09:00~21:00  海洋图书馆  - 09:00~18:00  - 09:00~18:00  - 休馆日：博物馆休馆日及法定假日</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岛区</GUGUN\_NM>  <ADDR1>釜山广域市影岛区海洋路301号街45</ADDR1>  <HOMEPAGE\_URL>https://www.knmm.or.kr/chi/main/main.aspx</HOMEPAGE\_URL>  <TITLE>国立海洋博物馆</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5627506\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728</LAT>  </item>  <item>  <MAIN\_TITLE>태종대</MAIN\_TITLE>  <LNG>129.0878</LNG>  <MIDDLE\_SIZE\_RM1>残疾人专用停车场、残疾人专用洗手间、导盲犬可陪同出入、DANUBI列车运行安装轮椅升降机的车辆、轮椅免费租赁（正门旅游咨询中心）</MIDDLE\_SIZE\_RM1>  <UC\_SEQ>258</UC\_SEQ>  <USAGE\_AMOUNT>免费（DANUBI列车票价另计）</USAGE\_AMOUNT>  <CNTCT\_TEL>+82-51-405-8745</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082996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 1号线釜山站7号出口 → 换乘66、88、101路巴士 → 在太宗台（太宗台温泉）站下车  巴士 乘坐8、30、66、88、101、186路巴士，在太宗台（太宗台温泉）站下车  停车 正门入口停车场（巴士专用）、第7停车场、自由乐园停车场（收费）</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这里是漫步于绿茵茵的清新林道中并可将蓝色大海尽收眼底之地，这里是常年被海浪拍打形成各种神秘色彩的岩石海岸展现其秀丽美景之地。这就是釜山影岛南端太宗台。太宗台因新罗的太宗武烈王被这里的景致迷住，在此享受射箭而得名。它是韩国的必游景点之一，碧海环绕的奇岩怪石和葱郁的绿茵开心地迎接着每一个访客。  访客们大多都乘坐DANUBI列车。外观可爱的“DANUBI”列车是环绕太宗台游园区的交通工具。从正门旅游咨询中心步行5分钟左右，就有DANUBI列车售票处和站台。这里有各项收费优惠，因此要仔细查看是否适用。发车后可在各条循环道路的停车地点自由上下车，享受更加便利的旅游。而且还可以悠然漫步于由树木形成的自然隧道。由于太宗台的循环道路和散步路非常整洁，所以只要有一双运动鞋就可以拥有完美旅程。  经过太原砾石广场、南港观景台就会抵达DANUBI列车的第一个停靠站——观景台休息区。乘坐列车的大部分游客在这里下车。对于到太宗台旅游的游客来说，这里是绝对不能错过的观景点，也是可以留下人生照片的场所。在观景台可眺望五六岛，天气好的时候还可以看到对马岛。在观景台旁边的阶梯下面，有着从1906年开始100多年来从未熄灭过的影岛灯塔。2004年，这里成为了拥有SEE&amp;SEA画廊、观景台、自然史展室、咖啡馆“蓝色海洋”等的海洋文化空间。在灯塔下的神仙岩上，等待出海的丈夫而变成石头的妻子成了望夫石，诉说着悲伤的故事。  太宗台不仅有可以眺望大海的观景点，还有连接海岸砾石广场的整齐的阶梯式小道。每到一处都会看到新奇的风景，游客们的心也会随之激动。这里虽与都市相距不远，却保留着仿佛与世隔绝的那份清静。  </ITEMCNTNTS>  <PLACE>太宗台游园区</PLACE>  <SUBTITLE>与家人、恋人、朋友一起游玩的最佳景点</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每天  夏季 3~10月（04:00~24:00）  冬季 11~2月（05:00~24:0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岛区</GUGUN\_NM>  <ADDR1>釜山广域市影岛区展望路24</ADDR1>  <HOMEPAGE\_URL>https://bit.ly/3dydJIr</HOMEPAGE\_URL>  <TITLE>太宗台 </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0829962\_thumbL</MAIN\_IMG\_THUMB>  <LAT>35.052643</LAT>  </item>  <item>  <MAIN\_TITLE>죽성성당</MAIN\_TITLE>  <LNG>129.24864</LNG>  <MIDDLE\_SIZE\_RM1>轮椅可通行</MIDDLE\_SIZE\_RM1>  <UC\_SEQ>259</UC\_SEQ>  <USAGE\_AMOUNT>免费</USAGE\_AMOUNT>  <CNTCT\_TEL />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182993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巴士 在海云台温泉十字路口站乘坐1003路巴士 → 在机张天主教堂站下车 → 换乘6路居民区小巴士 → 在豆湖村站下车  居民区小巴士 在机张郡厅站乘坐6路巴士 → 在豆湖村站下车  竹城天主教堂附近停车场（收费）</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完整地蕴含着东海绿宝石色彩的机张前海如今已成为众人来访之地。无论天气好坏，这里都是适合兜风的绝佳路线。人们为了来风景美丽的浪漫咖啡馆特意来到机张，他们必去的地方就是机张的竹城天主教堂。  位于釜山机张郡竹城里的竹城天主教堂可能是因为地处小渔村的地理特点，具有与众不同的氛围。就像照搬了中世纪的某个海滨村庄的风景，宛如一幅画卷。被撞碎在岩石上的白色泡沫与天主教堂的红屋顶形成鲜明对比，吸引着来访者们的视线。  虽然好像马上就会响起弥撒时间的钟声，但这里是于2009年为拍摄SBS电视台的韩剧《梦想》而搭建的电视剧外景地。虽然这部很早之前播放的电视剧已被人们忘却，但制作完美的这一空间已成为来机张旅游的游客们的必经景点。  在竹城天主教堂排队等候的人最多的地方就是拍照区，就像把相框框架原原本本地搬到此处一样。装在相框里的碧海蓝天创造出无比美丽的背景。看着令人豁然开朗的大海，即使享受只属于自己的时间也好，和相爱的人一起拍甜蜜的电影也罢，都会觉得无比美丽。围绕天主教堂的周围景色也全都不可错过。天主教堂旁边坑坑洼洼的奇妙的宽大石板是全身享受开阔大海的得天独厚的场所。此处与海云台或广安里海边风光不同，如果想领略海边小村庄的幽静情趣，这里便是最佳之地。天主教堂内还设有画廊，如果幸好是展览期间，还可以体验到意想不到的看点。  竹城里海松岛位于天主教堂步行10分钟左右的距离，也是奇景之一。这棵海松汇集了五颗树，看起来就像一棵树龄为250~300年的古老巨树。自古以来这里就是村民们祭祀丰渔祭的地方，供奉着城隍的国寿堂，因而具有很高的民俗价值。这里低垂的老松树枝仿佛在呼唤着八方游客。  竹城天主教堂与广阔的蓝天、无边无际的大海融为一体，更加彰显其魅力。海风习习，波涛声声，营造出清爽的气氛。红尖屋顶的天主教堂和大自然的相遇，或许就是忙碌于日常生活的现代人的小小乐园。  </ITEMCNTNTS>  <PLACE>竹城天主教堂</PLACE>  <SUBTITLE>韩剧外景地的惊人变化</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每天  全年</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机张郡</GUGUN\_NM>  <ADDR1>釜山广域市机张郡机张邑竹城里134-7</ADDR1>  <HOMEPAGE\_URL />  <TITLE>竹城天主教堂</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1829937\_thumbL</MAIN\_IMG\_THUMB>  <LAT>35.241013</LAT>  </item>  <item>  <MAIN\_TITLE>아홉산 숲</MAIN\_TITLE>  <LNG>129.17046</LNG>  <MIDDLE\_SIZE\_RM1 />  <UC\_SEQ>260</UC\_SEQ>  <USAGE\_AMOUNT>5000韩元（五岁以上）</USAGE\_AMOUNT>  <CNTCT\_TEL>+82-51-721-9183</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564573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 1号线老圃站 → 换乘2-3路居民区小巴士 → 在薇洞村站下车  停车 九峰山林停车场</TRFC\_INFO>  <HLDY\_INFO>每周一</HLDY\_INFO>  <ITEMCNTNTS>这是一片历经日本殖民统治时期、解放和战争及产业化也并未开放的拥有自然本色的树林。  400年来此处从未向世界开放过，位于釜山机张郡的九峰山林就是其主人公。  九峰山林中的“九峰山”是寓意怀抱九座山谷的名字。  2014年这里成为电影《群盗：民乱的时代》的拍摄地并开始被人所知。在2016年，400年来一直管理森林的主人家族决定向公众公开，从此人们才开始访问这里。这片森林长期以来既是绿化地带又是饮用水源保护区，因此可以保留健康的自然环境和生态。  走过售票处就开始了九峰山林的旅程。散步路的方向指示牌比较完善，只要按照箭头走就不用担心迷路。九峰山林中有竹子生态群落、金刚松树、扁柏树、橡树等各种树木。雄伟的树林带来的回声唯有亲自来访此处的人才能感受到，特别是这片树林无疑是116棵树能够被指定为保护树的具有悠久历史的树林。  虽然这里树木种类繁多，但能够代表这片树林的则是竹子生态群落。九峰山林的竹林有两处，沿着散步路首先遇见的是巫术之地——孟宗竹林。走进长得密密麻麻的竹林，仰望天空，被遮住的阳光则非常耀眼。第二个竹林是又名竹子林荫路的平地竹园。沿着小道两旁竹林密布，连一缕光线都很难射进，因此在这里可以更平静地散步。  走过常年未经人手、冲天般的树林后再回到入口，就有管理树林的家族宗宅“观薇轩”。蕴含着“连微不足道的蕨菜都注意观察”之意的该宗宅是完全不使用钉子的传统方式的韩屋。目前依然使用木灶的该宗宅至今仍有管理树林的家族在此居住。  绕九峰山林散步路一圈需要1-2个小时。掠过鼻尖的树的芳香、回响于耳边的鸟声、树木营造的凉爽树荫足以治愈因日常生活而疲惫的心灵，本周末不妨与九峰山林的古树一起释放压力吧。  </ITEMCNTNTS>  <PLACE>九峰山林</PLACE>  <SUBTITLE>竹之家，机张九峰山林</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周二~周日  周一至周五、周末 09:00-18:00（入场截止到16:3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机张郡</GUGUN\_NM>  <ADDR1>釜山广域市机张郡铁马面薇洞街37-1</ADDR1>  <HOMEPAGE\_URL />  <TITLE>九峰山林</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5645736\_thumbL</MAIN\_IMG\_THUMB>  <LAT>35.287334</LAT>  </item>  <item>  <MAIN\_TITLE>해동용궁사 </MAIN\_TITLE>  <LNG>129.22346</LNG>  <MIDDLE\_SIZE\_RM1>残疾人洗手间</MIDDLE\_SIZE\_RM1>  <UC\_SEQ>261</UC\_SEQ>  <USAGE\_AMOUNT />  <CNTCT\_TEL>+82-51-722-7744</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9082338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 2号线海云台站7号出口 → 换乘181、100、海云台9路巴士 → 在海东龙宫寺站下车  东海线Osiria站1号出口 → 在Osiria站巴士站换乘139路巴士 → 在海东龙宫寺站下车  釜山市区旅游巴士 釜山站（红线）→ 在海云台海水浴场换乘巴士（蓝线）→ 在海东龙宫寺站下车  停车 海东龙宫寺停车场（收费）</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你听过从一望无际的机张前海涌来的波涛声吗？如果忍不住发出感叹的海岸绝景和望不到边的茫茫大海就在您眼前会怎样呢？  让我们去往拥有大海、波涛和海风还有令人窒息的美景之地--海东龙宫寺吧。  位于釜山机张侍郎里海岸的海东龙宫寺因晸庵和尚梦见从海边骑着龙升天的观世音菩萨的故事而得名。在山海相连的陆地尽头，海东龙宫寺就像一幅画悬挂在那里。  在通往景区的小路上最先看到的是十二支神像，这里是给游客提供找到自己属相后一起拍照的乐趣的地方。十二支神守护十二个方位的土地，并阻止妖魔的侵犯，如同为人类五福祈求的守护神。穿过一柱门踏上连接松林的108阶梯，最终便会看到拥抱着大海的海东龙宫寺。在与寺庙相连的龙门桥上，经常能看见很多游客投硬币许愿的场景，这是由于龙宫寺有着“如果恳切地祈求，一定会有一个愿望能够得以实现”的灵验。  正如有着韩国最美的寺庙之称一样，这里整个景区都是海景，所以只要站在那里就会自动变成拍照区。如果想将辽阔的海景尽情地一览无余，那么推荐您登上大雄殿旁边的台阶。在那里看着面带慈爱微笑的海水观音大佛并脚踏蔚蓝的大海，在仿佛一切都属于自己的地方，可以留下珍贵的照片。。  如果想尽情地享受涌来的海浪和奇岩怪石和谐相融的海岸绝景，就沿着海岸散步路行走吧。在横穿天空和大海的水平线的末端，将一切拱手让出的日出岩绝对是海东龙宫寺的热门地标。能够伴随蔚蓝大海一起漫步属于海波朗路路线1的海岸散步路，使步行游客的脚步逐渐变得缓慢。  </ITEMCNTNTS>  <PLACE>海东龙宫寺 </PLACE>  <SUBTITLE>到海景圣地——海东龙宫寺旅游</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每天  05:00-日落</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机张郡</GUGUN\_NM>  <ADDR1>釜山广域市机张郡机张邑龙宫街86</ADDR1>  <HOMEPAGE\_URL>http://www.yongkungsa.or.kr/chn/01/01.php</HOMEPAGE\_URL>  <TITLE>海东龙宫寺</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90823385\_thumbL</MAIN\_IMG\_THUMB>  <LAT>35.188583</LAT>  </item>  <item>  <MAIN\_TITLE>임랑해수욕장</MAIN\_TITLE>  <LNG>129.26451</LNG>  <MIDDLE\_SIZE\_RM1>可乘坐轮椅进入、残疾人停车场、残疾人洗手间</MIDDLE\_SIZE\_RM1>  <UC\_SEQ>262</UC\_SEQ>  <USAGE\_AMOUNT>免费</USAGE\_AMOUNT>  <CNTCT\_TEL>+82-51-709-40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409380962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 2号线海云台站 → 换乘180路巴士 → 在林浪三岔路口站下车  巴士 乘坐37、180、188路巴士，在林浪三岔路口站下车  居民区小巴士 乘坐机张郡9、机张郡3路巴士，在林浪三岔路口站下车</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说到夏天就是大海，说到大海就是釜山，但釜山至今仍有不为人知的海水浴场。  作为釜山市民喜爱的机张郡两大海水浴场之一的林浪海水浴场就是其主人公。  说出“林浪”，嘴边都会有温暖的感觉。这个名字也源于美丽的松林和月光下闪烁的银色波浪。林浪海水浴场的沙滩长达1公里，环绕着大海，颜色非常明亮。如果是初次来访，第一眼就会被白白的沙滩所迷住。  夏天除了海水浴以外，还举行可免费在海边观看的“机张林浪夏季音乐节”、海边大学歌谣节和儿童童谣大赛等活动。  沿着沙滩散步还可以看到电影《The King》的拍摄地，其中作为演员赵寅成的别墅登场的房子就在此处。沙滩前面的房子和安静的海边村庄相得益彰。  林浪海水浴场和釜山的其他海边一样，一到夏天，前来度假的避暑游客比比皆是。  由于浪比较高，更是冲浪者的天堂。这里还为喜欢戏水和露营的人提供各种便利设施，配备浴室和更衣室，并可租借各种物品。与其他大型海水浴场不同的是，这里经常有租借凉床或房间的情况。除此之外，海水浴场附近还有民宿、度假民宿、生鱼片店，适合以家庭为单位的游客或恋人、朋友一起聚会。  而林浪海水浴场的最大魅力就是“夜晚”，这里的夜晚比其他任何大海都美丽。如果想象这里的夜景霓虹灯比比皆是，也许会有些遗憾，但欣赏到被波涛冲散的银色月光那就另当别论了。月光似乎在不停地推波助澜，破碎的泡沫让夜海的氛围变得更加浓郁。  另外，在林浪海水浴场附近有机张的四大古刹中的长安寺和妙观音寺。沿着静静的海路散步到附近山寺的旅程会让人心情平静。  这里有白天蔚蓝的大海和清爽的海风、与古寺一起度过的时间旅行，还有漫步于夜海的浪漫。  对于想离开霓虹灯闪烁的都市而看一看美丽月光的人，林浪海水浴场绝对是最佳场所。  </ITEMCNTNTS>  <PLACE>林浪海水浴场 </PLACE>  <SUBTITLE>映在白色沙滩上的银色月光</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开场时间：每年7月1日~8月31日  09:00~18:00（开场时可入海时间）</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机张郡</GUGUN\_NM>  <ADDR1>釜山广域市机张郡长安邑甲骨街</ADDR1>  <HOMEPAGE\_URL />  <TITLE>林浪海水浴场</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4093809621\_thumbL</MAIN\_IMG\_THUMB>  <LAT>35.31905</LAT>  </item>  <item>  <MAIN\_TITLE>문화공감 수정, 초량1941</MAIN\_TITLE>  <LNG>129.04265</LNG>  <MIDDLE\_SIZE\_RM1>无</MIDDLE\_SIZE\_RM1>  <UC\_SEQ>264</UC\_SEQ>  <USAGE\_AMOUNT>参考菜单</USAGE\_AMOUNT>  <CNTCT\_TEL>水晶：+82-51-441-0004  草梁1941：+82-51-462-7774</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417111584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文化共鸣水晶  都市铁路 从1号线釜山镇站1号出口步行7分钟  巴士 103路 庆南女子初中站下车  59, 67, 81, 167 고관입구 하차  59、67、81、167路 古馆入口站下车  从釜山站打车起步价即可到达  草梁1941  巴士 22、38、52、86、186路 金水寺下车  从釜山站打车起步价即可到达</TRFC\_INFO>  <HLDY\_INFO>文化共鸣水晶 传统节日休息  草梁1941 每周一</HLDY\_INFO>  <ITEMCNTNTS>釜山东区是将釜山所珍藏的近现代历史种子遍地播撒并开出故事之花的地方。沿着这些故事探寻，就能够遇见“文化共鸣水晶”。  文化共鸣水晶原名为“贞兰阁”。作为1943年建于日本殖民统治时期的建筑物，采用日本居住风格建成。由于空间赋予的独特魅力，成为多部电影、MV的拍摄地，韩国女歌手IU的歌曲《夜信》MV、韩国组合歌手乐童音乐家的歌曲《思春记》MV、韩国电影《与犯罪的战争：坏家伙的全盛时代》和《将军的儿子》等都曾在此拍摄。  走进与周边的现代式住宅形成鲜明对比的“水晶”庭园，明媚的阳光与碧绿的树木相映成趣。可以不必马上走进建筑物，在庭园里透个气也不错。仿佛穿越到过去的时光旅行，静谧的氛围笼罩着周围。  建筑物内部划分为1层和2层，以传统茶馆的方式经营。沿着安静的走廊走着，就会看到设有坐式桌子的房间。透过窗纸裱糊的门，可以看到景色一片祥和。  从文化共鸣水晶出发，向釜山站方向步行20分钟左右，就会见到“草梁1941”。草梁1941这个名字是将地区名称与住宅建造年份结合在一起命名的名字。矗立于住宅前方庭园内的树桩仿佛在为客人指路般，欢迎客人们的到来。挂在褪色屋檐下的风铃在风儿的吹拂下发出“叮铃铃”的清脆声音，撩拨客人的耳畔。  走进咖啡馆内，仿佛置身于旧韩末的京城，古色古香的立式桌子与大大的窗户相映成趣，尽情展现各自的风采。并且通过咖啡馆各个角落布置的新颖的小工艺品，也可以预猜到主人的品味。草梁1941店内开发出的各种牛奶菜单引人注目，装在玻璃瓶中的香草牛奶、红茶牛奶等十分小巧可爱。  在适合漫步的午后，如果您想在可以感受近代韵味的日式住宅中体验感性的咖啡馆之旅，为您推荐草梁1941和文化共鸣水晶。  </ITEMCNTNTS>  <PLACE>文化共鸣水晶、草梁1941</PLACE>  <SUBTITLE>在近代木造建筑物中享受悠闲的草梁咖啡馆之旅</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文化共鸣水晶 每天 09:00~18:00  草梁1941 周二~周日 11:00~19:0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东区</GUGUN\_NM>  <ADDR1>文化共鸣水晶：釜山广域市东区虹谷路75  草梁1941：釜山广域市东区望阳路533-5</ADDR1>  <HOMEPAGE\_URL />  <TITLE>文化共鸣水晶、草梁1941</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4171115847\_thumbL</MAIN\_IMG\_THUMB>  <LAT>35.125793</LAT>  </item>  <item>  <MAIN\_TITLE>일광해수욕장</MAIN\_TITLE>  <LNG>129.2336</LNG>  <MIDDLE\_SIZE\_RM1>盲道砖、残疾人停车场、残疾人洗手间</MIDDLE\_SIZE\_RM1>  <UC\_SEQ>265</UC\_SEQ>  <USAGE\_AMOUNT>免费</USAGE\_AMOUNT>  <CNTCT\_TEL>+82-51-709-40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4335323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铁路 2号线海云台站 → 换乘1006、180路巴士 → 在日光海水浴场站下车  巴士 乘坐188、180、1006路巴士，在日光海水浴场站下车  居民区小巴士 乘坐机张郡2、机张郡8-1、机张郡9、机张郡3、机张郡8路居民区小巴士，在日光海水浴场入口站下车</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釜山市民喜爱的大海，日光海水浴场  历史上被评为机张8景之一的美丽的日光海水浴场，相传在过去沿着海岸线就有老松林，是从高丽时代开始到郑梦周等人士游览的绝景之一。  日光海水浴场所在的日光面三圣里的名字来源于三圣台。相传三圣台起源于“井泊台”这一古语，“井”指的是药泉井、而“泊”指的是船舶停靠的地方。如今，沙滩中间隆起的部分被称为三圣台。  日光海水浴场是吴永寿于1953年发表的短篇小说《小渔村》的背景地，也是海边渔村的象征之地。1965年，金洙容导演在此拍摄了电影《渔村》。小说《小渔村》中出生在海边渔村的海女之女海顺是主人公。这部小说以日本殖民统治时期为背景，描写了无法承受苦难生活而离开大海后最终还是回到小渔村的女人的曲折人生。  村庄里依然保留着小说《小渔村》和电影《渔村》的足迹。自1995年开始发展成为海边庆典。每年夏天举行以作品为主题再加上场院剧演出的“小渔村场院剧节”。这是韩国唯一一个以海女为主题的海洋文化节。活动期间还可体验韩国演歌演唱会、海女下海捡海物、机张传统捕鱼方式——围网等活动。  与其他海水浴场相比，日光海水浴场的水深较浅、波涛较弱，因此深受带着小朋友前来避暑的游客的青睐。另外，这里仍保留着凉床文化，因此可在沙滩举行BBQ派对，别具特色。  但日光海水浴场独有的魅力还要更上一层楼。仅次于海上运动热门场所——松亭海水浴场的这一新海洋休闲运动场所备受人们的喜爱。这里具备水上摩托艇、飞鱼、香蕉船、尾波板、迪斯科快艇等各种娱乐项目，备受年轻避暑游客的关注。  在这里不仅可以领略釜山古老海边村庄的风貌，还可以体验崭新的海洋休闲运动，也少不了釜山大海的旧貌和时尚感十足的日光海水浴场。作为釜山大海的过去和未来共存的空间，日光海水浴场的魅力不分季节，四季彰显。  </ITEMCNTNTS>  <PLACE>日光海水浴场</PLACE>  <SUBTITLE>从时尚海上运动到古老风景</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开场期间：每年7月1日~8月31日  09:00-18:00（开场时可入海时间）</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机张郡</GUGUN\_NM>  <ADDR1>釜山广域市机张郡日光面三圣3街17 </ADDR1>  <HOMEPAGE\_URL />  <TITLE>日光海水浴场</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43353231\_thumbL</MAIN\_IMG\_THUMB>  <LAT>35.260025</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07</totalCount>  </body>  </response> |

5) [부산명소 중문 간체 정보] 상세기능명세

a) 상세기능정보

|  |  |  |  |
| --- | --- | --- | --- |
| **상세기능 번호** | 5 | **상세기능 유형** | 조회 |
| **상세기능명(국문)** | 부산명소 중문 번체 정보 | | |
| **상세기능 설명** | 부산명소 이름, 제목, 좌표, 상세정보, 이미지 등 중문 번체 정보 조회하는 기능 | | |
| **Call Back URL**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getAttractionZht | | |
| **최대 메시지 사이즈** | [4000] byte | | |
| **평균 응답 시간** | [500] ms | **초당 최대 트랙잭션** | [30] tps |

b) 요청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serviceKey | 인증키 | 100 | 1 | 인증키  (URL Encode) |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발급받은 인증키 |
| numOfRows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 결과 수 |
| pageNo | 페이지 번호 | 4 | 1 | 1 | 페이지 번호 |
| resultType | JSON방식 호출 | 4 | 0 |  | JSON방식으로 호출 시 파라미터 resultType=json 입력 |
| UC\_SEQ | 콘텐츠ID | 11 | 0 |  | 콘텐츠 ID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c) 응답 메시지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명(영문)** | | **항목명(국문)** | **항목크기** | **항목구분** | **샘플데이터** | **항목설명** |
| numOfRows | | 한 페이지 결과 수 | 4 | 1 | 10 | 한 페이지당 표출 데이터 수 |
| resultCode | | 결과코드 | 2 | 1 | 00 | 결과코드 |
| resultMsg | | 결과메시지 | 100 | 1 | OK | 결과메시지 |
| pageNo | | 페이지 수 | 4 | 1 | 1 | 페이지 수 |
| totalCount | | 데이터 총 개수 | 4 | 1 | 108 | 데이터 총 개수 |
| UC\_SEQ | | 콘텐츠ID | 11 | 1 | 255 | 콘텐츠ID |
| MAIN\_TITLE | | 콘텐츠명 | 300 | 0 | 흰여울문화마을 | 콘텐츠명 |
| GUGUN\_NM | | 구군 | 100 | 0 | 影島區 | 구군 |
| LAT | | 위도 | 20 | 0 | 35.07885 | 위도 |
| LNG | | 경도 | 20 | 0 | 129.04402 | 경도 |
| PLACE | | 여행지 | 300 | 0 | 白川文化村 | 여행지 |
| TITLE | | 제목 | 300 | 0 | 白川文化村 | 제목 |
| SUBTITLE | | 부제목 | 300 | 0 | 在白川街上的緩慢美學 | 부제목 |
| ADDR1 | | 주소 | 200 | 0 | 釜山廣域市影島區白川路 | 주소 |
| CNTCT\_TEL | | 연락처 | 200 | 0 | +82-51-419-4067 | 연락처 |
| HOMEPAGE\_URL | | 홈페이지 | 200 | 0 | http://huinnyeoul.co.kr | 홈페이지 |
| TRFC\_INFO | 교통정보 | | 500 | 0 | 都市鐵路 1號線南浦站6號出口 → 換乘7、71、508路巴士 → 在瀛仙洞白蓮寺站下車  巴士 乘坐7、71、508路巴士，在瀛仙洞白蓮寺站下車  釜山市區旅遊巴士 釜山站（珍寶巴士） → 在白川文化村站下車  停車 絕影海岸散步路入口公營停車場（收費） | 교통정보 |
| USAGE\_DAY | | 운영일 | 500 | 0 |  | 운영일 |
| HLDY\_INFO | | 휴무일 | 500 | 0 |  | 휴무일 |
| USAGE\_DAY\_WEEK\_AND\_TIME | | 운영 및 시간 | 500 | 0 | 每天 全年 | 운영 및 시간 |
| USAGE\_AMOUNT | | 이용요금 | 500 | 0 | 免費 | 이용요금 |
| MIDDLE\_SIZE\_RM1 | | 편의시설 | 500 | 0 | 珍寶巴士配備輪椅升降機、票價優惠50%、殘疾人停車場（絕影海岸散步路公營停車場，收費） | 편의시설 |
| MAIN\_IMG\_NORMAL | | 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tiel | 이미지URL |
| MAIN\_IMG\_THUMB | | 썸네일이미지URL | 500 | 0 | /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humbL | 썸네일이미지URL |
| ITEMCNTNTS | | 상세내용 | 1000 | 0 | 在絕影海岸散步路的陡壁之上，映入眼簾的是獨特的村莊風景。在海岸絕壁的盡頭，沿著大海一路延伸的小巷裡，小房子鱗次櫛比。這裡既是難民們淒涼生活的起點，也是與現在村民們一起生活的文化村共同體—白川文化村的所在地。  白川路作為釜山原來最具代表性的城市中心，因從蓬萊山腳下蜿蜒流淌的水柱與白雪紛飛的樣子相似從而得名。 2011年12月，將老舊的房屋進行改造後，現已成為一座能夠感受影島生活的獨具匠心的文化藝術村。  估計即使是沒有看過電影《辯護人》的人也能背誦這部影片的經典台詞，因為在鎮宇家的圍牆上寫得很大。很多遊客在影島的頭號旅行認證照就是鎮宇家的圍牆。而圍牆所在的地方就是白川文化村的起點——村莊諮詢處。白川路共有14條胡同，有精緻的小咖啡館、工坊、獨立書店等。漫步在小巷，海景映入眼簾，透過石縫間盛開的不知名的植物，可以感受難得的閒暇。在白川路上不可或缺的路線之一當然是“白川店鋪”。面對汪洋大海，邊呼呼吹著熱氣邊吃的方便麵，可謂是人間美味。通過此次旅途，可以讓疲憊的內心照入一絲平和之光。路的盡頭再次與絕影海岸散步路連接，會和在絕壁和地面間奮力攀上攀下的遊客們相遇。  沿著村莊的圍牆行走的白川路，在現在的絕影路出現之前，曾是通往太宗台唯一的一條路。聽著海浪聲，一路上的視線會忍不住總是停留在海上。大大小小的船隻漸漸浮起的場景很有異國風情。這是進入釜山港的船舶拋錨後暫時停留的地方，是屬於錨泊地特有的風景，也是只有在影島才能看到的獨特景觀。  靠近大海的懸崖峭壁，在村莊共同體的努力下，使無人居住的地方綻放出了藝術之魂。在白川觀景台中看到影島前海不禁會讓人心生感慨。  現在，這裡，我們  白川 | 상세내용 |

※ 항목구분 : 필수(1), 옵션(0), 1건 이상 복수건(1..n), 0건 또는 복수건(0..n)

d) 요청/응답 메시지 예제

|  |
| --- |
| **요청메시지** |
| http://apis.data.go.kr/6260000/AttractionService/getAttractionZht?serviceKey=인증키&numOfRows=10&pageNo=1 |
| **응답메시지** |
| <response>  <header>  <resultCode>00</resultCode>  <resultMsg>NORMAL\_CODE</resultMsg>  </header>  <body>  <items>  <item>  <MAIN\_TITLE>흰여울문화마을</MAIN\_TITLE>  <LNG>129.04402</LNG>  <MIDDLE\_SIZE\_RM1>珍寶巴士配備輪椅升降機、票價優惠50%、殘疾人停車場（絕影海岸散步路公營停車場，收費）</MIDDLE\_SIZE\_RM1>  <UC\_SEQ>255</UC\_SEQ>  <USAGE\_AMOUNT>免費</USAGE\_AMOUNT>  <CNTCT\_TEL>+82-51-419-4067</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1號線南浦站6號出口 → 換乘7、71、508路巴士 → 在瀛仙洞白蓮寺站下車  巴士 乘坐7、71、508路巴士，在瀛仙洞白蓮寺站下車  釜山市區旅遊巴士 釜山站（珍寶巴士） → 在白川文化村站下車  停車 絕影海岸散步路入口公營停車場（收費）</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在絕影海岸散步路的陡壁之上，映入眼簾的是獨特的村莊風景。在海岸絕壁的盡頭，沿著大海一路延伸的小巷裡，小房子鱗次櫛比。這裡既是難民們淒涼生活的起點，也是與現在村民們一起生活的文化村共同體—白川文化村的所在地。  白川路作為釜山原來最具代表性的城市中心，因從蓬萊山腳下蜿蜒流淌的水柱與白雪紛飛的樣子相似從而得名。 2011年12月，將老舊的房屋進行改造後，現已成為一座能夠感受影島生活的獨具匠心的文化藝術村。  估計即使是沒有看過電影《辯護人》的人也能背誦這部影片的經典台詞，因為在鎮宇家的圍牆上寫得很大。很多遊客在影島的頭號旅行認證照就是鎮宇家的圍牆。而圍牆所在的地方就是白川文化村的起點——村莊諮詢處。白川路共有14條胡同，有精緻的小咖啡館、工坊、獨立書店等。漫步在小巷，海景映入眼簾，透過石縫間盛開的不知名的植物，可以感受難得的閒暇。在白川路上不可或缺的路線之一當然是“白川店鋪”。面對汪洋大海，邊呼呼吹著熱氣邊吃的方便麵，可謂是人間美味。通過此次旅途，可以讓疲憊的內心照入一絲平和之光。路的盡頭再次與絕影海岸散步路連接，會和在絕壁和地面間奮力攀上攀下的遊客們相遇。  沿著村莊的圍牆行走的白川路，在現在的絕影路出現之前，曾是通往太宗台唯一的一條路。聽著海浪聲，一路上的視線會忍不住總是停留在海上。大大小小的船隻漸漸浮起的場景很有異國風情。這是進入釜山港的船舶拋錨後暫時停留的地方，是屬於錨泊地特有的風景，也是只有在影島才能看到的獨特景觀。  靠近大海的懸崖峭壁，在村莊共同體的努力下，使無人居住的地方綻放出了藝術之魂。在白川觀景台中看到影島前海不禁會讓人心生感慨。  現在，這裡，我們  白川  </ITEMCNTNTS>  <PLACE>白川文化村</PLACE>  <SUBTITLE>在白川街上的緩慢美學</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每天  全年</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區</GUGUN\_NM>  <ADDR1>釜山廣域市影島區白川路</ADDR1>  <HOMEPAGE\_URL />  <TITLE>白川文化村</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64810529\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85</LAT>  </item>  <item>  <MAIN\_TITLE>깡깡이 예술마을</MAIN\_TITLE>  <LNG>129.03255</LNG>  <MIDDLE\_SIZE\_RM1>輪椅可通行</MIDDLE\_SIZE\_RM1>  <UC\_SEQ>256</UC\_SEQ>  <USAGE\_AMOUNT>依項目而異</USAGE\_AMOUNT>  <CNTCT\_TEL>+82-51-418-3336</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120900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1號線南浦站（6號出口）步行18分鐘  居民區小巴士 影島區2路巴士，大平洞站下車  停車 蓬萊洞、南港市場公營停車場（收費）</TRFC\_INFO>  <HLDY\_INFO>每週一 (旅遊等設施)</HLDY\_INFO>  <ITEMCNTNTS>穿過影島大橋，在札嘎其市場對面的碼頭滿滿停泊著很多船。這裡就是傳聞世上沒有修理不了的船的大名鼎鼎的修理造船發祥地，也是奚琴（GANG-GANG）藝術村的所在地。 GANG-GANG是在修理造船廠裡用錘子敲掉船表面生鏽的油漆或貝殼時會發出“GANG-GANG”的聲音而由此得名。從整個村莊從未停止過“GANG-GANG”聲音的那時起，大平洞就被稱為了奚琴（GANG-GANG）藝術村。  也許是因為“奚琴（GANG-GANG）藝術村”的由來，原以為發出“GANG-GANG”聲音的勞動者是男性技術工人，但其實不是。把身體交付給一根繩索，在漫長的歲月裡，完成這艱難勞動的人不是別人而是大平洞的大嬸們。為了讓子女能脫離貧困，戰勝失聰或失明的危險，默默堅守著造船廠的“鐵娘子”們。  說到造船廠，雖然大部分人可能會以為只能聞到大海的味道和聽到“GANG-GANG”的聲音，但從奚琴藝術村的名字中帶著“藝術村”這三個字，就可看出一定有專屬於它的特色。幾年前開始，在無法分辨造船廠的機械聲和不知道具體高度的機器比比皆是的村莊里開始了城市再生工程。以“奚琴藝術村建設項目”為名，藝術家們在村中各處設置了公共藝術品，並通過村莊工作室、生活文化中心、鄉村旅遊、遊覽船體驗、船舶體驗館等設施，開始了與來訪村莊遊客的溝通。  如果申請綜合路線，不僅可以與村莊解說員一起體驗生動的胡同之旅，還可以體驗遊覽船的海上之旅。每當進入一個胡同，就開始尋找又會有怎樣的藝術家作品，也是別有一番情趣。村博物館裡陳列著100多年積累的有關修理造船業的故事和居民的生活情況，通過影像、文物、文字、藝術作品等多種媒介，能夠讓遊客一目了然。  提到“釜山”，雖然有海雲台、廣安里等，但是在釜山老城區，展開故事之旅的影島也有多樣的看點、美食和趣味活動，其中，也有像奚琴藝術村一樣歷史和藝術存活著的村莊。釜山近代文化的現在進行時，來體驗一下奚琴藝術村鮮活的歷史吧。  </ITEMCNTNTS>  <PLACE>奚琴藝術村</PLACE>  <SUBTITLE>歷史與藝術共存的地方</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希望盡量避開週一至週五白天，在周末遊玩或使用綜合旅遊項目服務。  週一~週五、週末 10:00~17:0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區</GUGUN\_NM>  <ADDR1>釜山廣域市影島區大平北路36 奚琴服務中心</ADDR1>  <HOMEPAGE\_URL>http://kangkangee.com/index.php/englishpage\_about/</HOMEPAGE\_URL>  <TITLE>奚琴藝術村</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1209005\_thumbL</MAIN\_IMG\_THUMB>  <LAT>35.092648</LAT>  </item>  <item>  <MAIN\_TITLE>국립해양박물관</MAIN\_TITLE>  <LNG>129.08018</LNG>  <MIDDLE\_SIZE\_RM1>物品存放處（1、2樓）、輪椅免費租賃、盲道磚、盲文指示牌、導盲犬陪同出入、電梯、殘疾人停車場、殘疾人衛生間、4D影像館內輪椅坐席</MIDDLE\_SIZE\_RM1>  <UC\_SEQ>257</UC\_SEQ>  <USAGE\_AMOUNT>門票免費（但不包括4D影像館、特別收費展覽）</USAGE\_AMOUNT>  <CNTCT\_TEL>+82-51-309-19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562750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1號線南浦站6號出口 → 換乘186、66路巴士 → 國立海洋博物館站下車  釜山市區旅遊巴士 釜山站（珍寶巴士）→ 國立海洋博物館站下車  停車 國立海洋博物館停車場（收費）</TRFC\_INFO>  <HLDY\_INFO>每週一</HLDY\_INFO>  <ITEMCNTNTS>雖說提到釜山就會想到大海，提到大海就會想到釜山，但我們對韓國的海洋到底又了解多少呢?  開啟世界所有海洋故事起點的國立海洋博物館為我們介紹海洋的過去、現在和未來。  以釜山的前海為背景，擁有宏偉外觀的建築物映入人們的眼簾。把跳躍的水滴形象化的外形猶如橫跨銀河系的宇宙飛船。國立海洋博物館內陳設著有關海洋文化、歷史、科學以及考古學等專業資料，是提供高水平海洋體驗項目的韓國唯一一個綜合海洋博物館。  讓我們從設有常設展覽館的3樓開始探訪之旅。剛進入門口就映入眼簾的大型水族館。巨大的海龜在頭頂悠然自得地游來游去，如同吸引孩子們聚集在水族館前的魔術師。水族館旁邊則是能夠一目了然地了解到韓國祖先們的海洋技術的航海船舶、無畏的向大海發起挑戰的航海人、在海上生活的必備傳統捕撈道具等的常設展覽館。復原至與實物大小相似的朝鮮通信使木船前面是非常受歡迎的拍照區，需要排隊等候。如果想了解有趣的海洋生物的起源，可以參觀海洋生物展覽館。如果想要滿足對海洋休閒運動的好奇心，可以去海洋體驗館。與大海親近的愉快體驗正在等待大家的到來。  常设展览馆继续延伸至4楼。海洋产业的展览揭示了传统的海洋产业历史和海洋生产力，对深海勘探和极地研究的展览则解开了人们对未知领域的疑问  現在是與熱愛海洋的孩子們一起參觀2樓兒童博物館的時間。兒童博物館是孩子們可以自己操作和體驗的海洋體驗空間。在展位各處，沉浸在有趣的海洋遊戲裡的孩子們會忘卻時間的流走。這裡設有專門的野餐室，對於以家庭為單位攜帶盒飯的遊客來說，是最受歡迎的地方。  想要與家人在特別的地方度過？當然是國立海洋博物館 。  </ITEMCNTNTS>  <PLACE> 國立海洋博物館</PLACE>  <SUBTITLE>對於海洋，你了解多少?</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週二~週日  國立海洋博物館  - 週一~週五 09:00~18:00  - 週六 [9月~4月] 09:00~19:00 / [5月~8月] 09:00~21:00  - 週日、公休日 09:00~19:00  - 春節‧中秋節次日、兒童節、光復節 09:00~21:00  海洋圖書館  - 09:00~18:00  - 休館日：博物館休館日及法定假日</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區</GUGUN\_NM>  <ADDR1>釜山廣域市影島區海洋路301號街45</ADDR1>  <HOMEPAGE\_URL>https://www.knmm.or.kr/chi/main/main.aspx</HOMEPAGE\_URL>  <TITLE> 國立海洋博物館</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75627506\_thumbL</MAIN\_IMG\_THUMB>  <LAT>35.078728</LAT>  </item>  <item>  <MAIN\_TITLE>태종대</MAIN\_TITLE>  <LNG>129.0878</LNG>  <MIDDLE\_SIZE\_RM1>殘疾人專用停車場、殘疾人專用洗手間、導盲犬可陪同出入、DANUBI列車運行安裝輪椅升降機的車輛、輪椅免費租賃（正門旅遊諮詢中心）</MIDDLE\_SIZE\_RM1>  <UC\_SEQ>258</UC\_SEQ>  <USAGE\_AMOUNT>免費 （DANUBI列車票價另計）</USAGE\_AMOUNT>  <CNTCT\_TEL>+82-51-405-8745</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0829962\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1號線釜山站7號出口 → 換乘66、88、101路巴士 → 在太宗台（太宗台溫泉）站下車  巴士 乘坐8、30、66、88、101、186路巴士，在太宗台（太宗台溫泉）站下車  停車 正門入口停車場（巴士專用）、第7停車場、自由樂園停車場（收費）</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這裡是漫步於綠茵茵的清新林道中並可將藍色大海盡收眼底之地，這裡是常年被海浪拍打形成各種神秘色彩的岩石海岸展現其秀麗美景之地。這就是釜山影島南端太宗台。太宗台因新羅的太宗武烈王被這裡的景緻迷住，在此享受射箭而得名。它是韓國的必遊景點之一，碧海環繞的奇岩怪石和蔥鬱的綠茵開心地迎接著每一個訪客。  訪客們大多都乘坐DANUBI列車。外觀可愛的“DANUBI”列車是環繞太宗台遊園區的交通工具。從正門旅遊諮詢中心步行5分鐘左右，就有DANUBI列車售票處和站台。這裡有各項收費優惠，因此要仔細查看是否適用。發車後可在各條循環道路的停車地點自由上下車，享受更加便利的旅遊。而且還可以悠然漫步於由樹木形成的自然隧道。由於太宗台的循環道路和散步路非常整潔，所以只要有一雙運動鞋就可以擁有完美旅程。  經過太原礫石廣場、南港觀景台就會抵達DANUBI列車的第一個停靠站——觀景台休息區。乘坐列車的大部分遊客在這裡下車。對於到太宗台旅遊的遊客來說，這裡是絕對不能錯過的觀景點，也是可以留下人生照片的場所。在觀景台可眺望五六島，天氣好的時候還可以看到對馬島。在觀景台旁邊的階梯下面，有著從1906年開始100多年來從未熄滅過的影島燈塔。 2004年，這裡成為了擁有SEE&amp;SEA畫廊、觀景台、自然史展室、咖啡館“藍色海洋”等的海洋文化空間。在燈塔下的神仙岩上，等待出海的丈夫而變成石頭的妻子成瞭望夫石，訴說著悲傷的故事。  太宗台不僅有可以眺望大海的觀景點，還有連接海岸礫石廣場的整齊的階梯式小道。每到一處都會看到新奇的風景，遊客們的心也會隨之激動。這裡雖與都市相距不遠，卻保留著彷彿與世隔絕的那份清靜。  </ITEMCNTNTS>  <PLACE>太宗台遊園區</PLACE>  <SUBTITLE>與家人、戀人、朋友一起遊玩的最佳景點</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每天  夏季 3~10月（04:00~24:00）  冬季 11~2月（05:00~24:0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影島區</GUGUN\_NM>  <ADDR1>釜山廣域市影島區展望路24</ADDR1>  <HOMEPAGE\_URL>https://bit.ly/3dydJIr</HOMEPAGE\_URL>  <TITLE>太宗台</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0829962\_thumbL</MAIN\_IMG\_THUMB>  <LAT>35.052643</LAT>  </item>  <item>  <MAIN\_TITLE>죽성성당</MAIN\_TITLE>  <LNG>129.24864</LNG>  <MIDDLE\_SIZE\_RM1>輪椅可通行</MIDDLE\_SIZE\_RM1>  <UC\_SEQ>259</UC\_SEQ>  <USAGE\_AMOUNT>免費</USAGE\_AMOUNT>  <CNTCT\_TEL />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182993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巴士 在海雲台溫泉十字路口站乘坐1003路巴士 → 在機張天主教堂站下車 → 換乘6路居民區小巴士 → 在豆湖村站下車  居民區小巴士 在機張郡廳站乘坐6路巴士 → 在豆湖村站下車  竹城天主教堂附近停車場（收費）</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完整地蘊含著東海綠寶石色彩的機張前海如今已成為眾人來訪之地。無論天氣好壞，這裡都是適合兜風的絕佳路線。人們為了來風景美麗的浪漫咖啡館特意來到機張，他們必去的地方就是機張的竹城天主教堂。  位於釜山機張郡竹城裡的竹城天主教堂可能是因為地處小漁村的地理特點，具有與眾不同的氛圍。就像照搬了中世紀的某個海濱村莊的風景，宛如一幅畫卷。被撞碎在岩石上的白色泡沫與天主教堂的紅屋頂形成鮮明對比，吸引著來訪者們的視線。  雖然好像馬上就會響起彌撒時間的鐘聲，但這裡是於2009年為拍攝SBS電視台的韓劇《夢想》而搭建的電視劇外景地。雖然這部很早之前播放的電視劇已被人們忘卻，但製作完美的這一空間已成為來機張旅遊的遊客們的必經景點。  在竹城天主教堂排隊等候的人最多的地方就是拍照區，就像把相框框架原原本本地搬到此處一樣。裝在相框裡的碧海藍天創造出無比美麗的背景。看著令人豁然開朗的大海，即使享受只屬於自己的時間也好，和相愛的人一起拍甜蜜的電影也罷，都會覺得無比美麗。圍繞天主教堂的周圍景色也全都不可錯過。天主教堂旁邊坑坑洼窪的奇妙的寬大石板是全身享受開闊大海的得天獨厚的場所。此處與海雲台或廣安里海邊風光不同，如果想領略海邊小村莊的幽靜情趣，這里便是最佳之地。天主教堂內還設有畫廊，如果幸好是展覽期間，還可以體驗到意想不到的看點。  竹城里海松島位於天主教堂步行10分鐘左右的距離，也是奇景之一。這棵海松匯集了五顆樹，看起來就像一棵樹齡為250~300年的古老巨樹。自古以來這裡就是村民們祭祀豐漁祭的地方，供奉著城隍的國壽堂，因而具有很高的民俗價值。這裡低垂的老松樹枝彷彿在呼喚著八方遊客。  竹城天主教堂與廣闊的藍天、無邊無際的大海融為一體，更加彰顯其魅力。海風習習，波濤聲聲，營造出清爽的氣氛。紅尖屋頂的天主教堂和大自然的相遇，或許就是忙碌於日常生活的現代人的小小樂園。  </ITEMCNTNTS>  <PLACE>竹城天主教堂</PLACE>  <SUBTITLE>韓劇外景地的驚人變化</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每天  全年</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機張郡</GUGUN\_NM>  <ADDR1>釜山廣域市機張郡機張邑竹城裡134-7</ADDR1>  <HOMEPAGE\_URL />  <TITLE>竹城天主教堂</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1829937\_thumbL</MAIN\_IMG\_THUMB>  <LAT>35.241013</LAT>  </item>  <item>  <MAIN\_TITLE>아홉산 숲</MAIN\_TITLE>  <LNG>129.17046</LNG>  <MIDDLE\_SIZE\_RM1 />  <UC\_SEQ>260</UC\_SEQ>  <USAGE\_AMOUNT>5000韓元（五歲以上）</USAGE\_AMOUNT>  <CNTCT\_TEL>+82-51-721-9183</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5645736\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1號線老圃站 → 換乘2-3路居民區小巴士 → 在薇洞村站下車  停車 九峰山林停車場</TRFC\_INFO>  <HLDY\_INFO>每週一</HLDY\_INFO>  <ITEMCNTNTS>這是一片歷經日本殖民統治時期、解放和戰爭及產業化也並未開放的擁有自然本色的樹林。  400年來此處從未向世界開放過，位於釜山機張郡的九峰山林就是其主人公 。  九峰山林中的“九峰山”是寓意懷抱九座山谷的名字。  2014年這裡成為電影《群盜：民亂的時代》的拍攝地並開始被人所知。在2016年，400年來一直管理森林的主人家族決定向公眾公開，從此人們才開始訪問這裡。這片森林長期以來既是綠化地帶又是飲用水源保護區，因此可以保留健康的自然環境和生態。  走過售票處就開始了九峰山林的旅程。散步路的方向指示牌比較完善，只要按照箭頭走就不用擔心迷路。九峰山林中有竹子生態群落、金剛松樹、扁柏樹、橡樹等各種樹木。雄偉的樹林帶來的迴聲唯有親自來訪此處的人才能感受到，特別是這片樹林無疑是116棵樹能夠被指定為保護樹的具有悠久歷史的樹林。  雖然這裡樹木種類繁多，但能夠代表這片樹林的則是竹子生態群落。九峰山林的竹林有兩處，沿著散步路首先遇見的是巫術之地——孟宗竹林。走進長得密密麻麻的竹林，仰望天空，被遮住的陽光則非常耀眼。第二個竹林是又名竹子林蔭路的平地竹園。沿著小道兩旁竹林密布，連一縷光線都很難射進，因此在這裡可以更平靜地散步。  走過常年未經人手的、沖天般的樹林後再回到入口，就有管理樹林的家族宗宅“觀薇軒”。蘊含著“連微不足道的蕨菜都注意觀察”之意的該宗宅是完全不使用釘子的傳統方式的韓屋。目前依然使用木灶的該宗宅至今仍有管理樹林的家族在此居住。  繞九峰山林散步路一圈需要1-2個小時。掠過鼻尖的樹的芳香、迴響於耳邊的鳥聲、樹木營造的涼爽樹蔭足以治愈因日常生活而疲憊的心靈，本週末不妨與九峰山林的古樹一起釋放壓力吧。  </ITEMCNTNTS>  <PLACE>九峰山林</PLACE>  <SUBTITLE>竹之家，機張九峰山林</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週二~週日  週一至週五、週末 09:00~18:00（入場截止到16:3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機張郡</GUGUN\_NM>  <ADDR1>釜山廣域市機張郡鐵馬面薇洞街37-1</ADDR1>  <HOMEPAGE\_URL />  <TITLE>九峰山林</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85645736\_thumbL</MAIN\_IMG\_THUMB>  <LAT>35.287334</LAT>  </item>  <item>  <MAIN\_TITLE>해동용궁사 </MAIN\_TITLE>  <LNG>129.22346</LNG>  <MIDDLE\_SIZE\_RM1>殘疾人洗手間</MIDDLE\_SIZE\_RM1>  <UC\_SEQ>261</UC\_SEQ>  <USAGE\_AMOUNT>免費</USAGE\_AMOUNT>  <CNTCT\_TEL>+82-51-722-7744</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90823385\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2號線海雲台站7號出口 → 換乘181、100、海雲台9路巴士 → 在海東龍宮寺站下車  東海線Osiria站1號出口 → 在Osiria站巴士站換乘139路巴士 → 在海東龍宮寺站下車  釜山市區旅遊巴士 釜山站（紅線）→ 在海雲台海水浴場換乘巴士（藍線）→ 在海東龍宮寺站下車  停車 海東龍宮寺停車場（收費）</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你聽過從一望無際的機張前海湧來的波濤聲嗎？如果忍不住發出感嘆的海岸絕景和望不到邊的茫茫大海就在您眼前會怎樣呢？  讓我們去往擁有大海、波濤和海風還有令人窒息的美景之地--海東龍宮寺吧。  位於釜山機張侍郎里海岸的海東龍宮寺因晸庵和尚夢見從海邊騎著龍昇天的觀世音菩薩的故事而得名。在山海相連的陸地盡頭，海東龍宮寺就像一幅畫懸掛在那裡。  在通往景區的小路上最先看到的是十二支神像，這裡是給遊客提供找到自己屬相後一起拍照的樂趣的地方。十二支神守護十二個方位的土地，並阻止妖魔的侵犯，如同為人類五福祈求的守護神。穿過一柱門踏上連接松林的108階梯，最終便會看到擁抱著大海的海東龍宮寺。在與寺廟相連的龍門橋上，經常能看見很多遊客投硬幣許願的場景，這是由於龍宮寺有著“如果懇切地祈求，一定會有一個願望能夠得以實現”的靈驗。  正如有著韓國最美的寺廟之稱一樣，這裡整個景區都是海景，所以只要站在那裡就會自動變成拍照區。如果想將遼闊的海景盡情地一覽無餘，那麼推薦您登上大雄殿旁邊的台階。在那裡看著面帶慈愛微笑的海水觀音大佛並腳踏蔚藍的大海，在彷彿一切都屬於自己的地方，可以留下珍貴的照片。 。  如果想盡情地享受湧來的海浪和奇岩怪石和諧相融的海岸絕景，就沿著海岸散步路行走吧。在橫穿天空和大海的水平線的末端，將一切拱手讓出的日出岩絕對是海東龍宮寺的熱門地標。能夠伴隨蔚藍大海一起漫步屬於海波朗路路線1的海岸散步路，使步行遊客的腳步逐漸變得緩慢。  </ITEMCNTNTS>  <PLACE>海東龍宮寺</PLACE>  <SUBTITLE>到海景聖地——海東龍宮寺旅遊</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每天  05:00~日落</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機張郡</GUGUN\_NM>  <ADDR1>釜山廣域市機張郡機張邑龍宮街86</ADDR1>  <HOMEPAGE\_URL>http://www.yongkungsa.or.kr/chn/01/01.php</HOMEPAGE\_URL>  <TITLE>海東龍宮寺</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2190823385\_thumbL</MAIN\_IMG\_THUMB>  <LAT>35.188583</LAT>  </item>  <item>  <MAIN\_TITLE>임랑해수욕장</MAIN\_TITLE>  <LNG>129.26451</LNG>  <MIDDLE\_SIZE\_RM1>可乘坐輪椅進入、殘疾人停車場、殘疾人洗手間</MIDDLE\_SIZE\_RM1>  <UC\_SEQ>262</UC\_SEQ>  <USAGE\_AMOUNT>免費</USAGE\_AMOUNT>  <CNTCT\_TEL>+82-51-709-40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409380962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2號線海雲台站 → 換乘180路巴士 → 在林浪三岔路口站下車  巴士 乘坐37、180、188路巴士，在林浪三岔路口站下車  居民區小巴士 乘坐機張郡9、機張郡3路巴士，在林浪三岔路口站下車</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說到夏天就是大海，說到大海就是釜山，但釜山至今仍有不為人知的海水浴場。  作為釜山市民喜愛的機張郡兩大海水浴場之一的林浪海水浴場就是其主人公。  說出“林浪”，嘴邊都會有溫暖的感覺。這個名字也源於美麗的松林和月光下閃爍的銀色波浪。林浪海水浴場的沙灘長達1公里，環繞著大海，顏色非常明亮。如果是初次來訪，第一眼就會被白白的沙灘所迷住。  夏天除了海水浴以外，還舉行可免費在海邊觀看的“機張林浪夏季音樂節”、海邊大學歌謠節和兒童童謠大賽等活動。  沿著沙灘散步還可以看到電影《The King》的拍攝地，其中作為演員趙寅成的別墅登場的房子就在此處。沙灘前面的房子和安靜的海邊村莊相得益彰。  林浪海水浴場和釜山的其他海邊一樣，一到夏天，前來度假的避暑遊客比比皆是。  由於浪比較高，更是衝浪者的天堂。這裡還為喜歡戲水和露營的人提供各種便利設施，配備浴室和更衣室，並可租借各種物品。與其他大型海水浴場不同的是，這裡經常有租借涼床或房間的情況。除此之外，海水浴場附近還有民宿、度假民宿、生魚片店，適合以家庭為單位的遊客或戀人、朋友一起聚會。  而林浪海水浴場的最大魅力就是“夜晚”，這裡的夜晚比其他任何大海都美麗。如果想像這裡的夜景霓虹燈比比皆是，也許會有些遺憾，但欣賞到被波濤沖散的銀色月光那就另當別論了。月光似乎在不停地推波助瀾，破碎的泡沫讓夜海的氛圍變得更加濃郁。  另外，在林浪海水浴場附近有機張的四大古剎中的長安寺和妙觀音寺。沿著靜靜的海路散步到附近山寺的旅程會讓人心情平靜。  這裡有白天蔚藍的大海和清爽的海風、與古寺一起度過的時間旅行，還有漫步於夜海的浪漫。  對於想離開霓虹燈閃爍的都市而看一看美麗月光的人，林浪海水浴場絕對是最佳場所。  </ITEMCNTNTS>  <PLACE>林浪海水浴場</PLACE>  <SUBTITLE>映在白色沙灘上的銀色月光</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開場時間：每年7月1日~8月31日  09:00~18:00（開場時可入海時間）</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機張郡</GUGUN\_NM>  <ADDR1>釜山廣域市機張郡長安邑甲骨街</ADDR1>  <HOMEPAGE\_URL />  <TITLE>林浪海水浴場</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4093809621\_thumbL</MAIN\_IMG\_THUMB>  <LAT>35.31905</LAT>  </item>  <item>  <MAIN\_TITLE>문화공감 수정, 초량1941</MAIN\_TITLE>  <LNG>129.04265</LNG>  <MIDDLE\_SIZE\_RM1>無</MIDDLE\_SIZE\_RM1>  <UC\_SEQ>264</UC\_SEQ>  <USAGE\_AMOUNT>參考菜單</USAGE\_AMOUNT>  <CNTCT\_TEL>水晶：+82-51-441-0004  草梁1941：+82-51-462-7774</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4171115847\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文化共鳴水晶  都市鐵路 從1號線釜山鎮站1號出口步行7分鐘  巴士 103路 慶南女子初中站下車  59、67、81、167路 古館入口站下車  從釜山站打車起步價即可到達  草梁1941  巴士 22、38、52、86、186路 金水寺下車  從釜山站打車起步價即可到達</TRFC\_INFO>  <HLDY\_INFO>文化共鳴水晶 : 節日休息  草梁1941 : 每週一</HLDY\_INFO>  <ITEMCNTNTS>釜山東區是將釜山所珍藏的近現代歷史種子遍地播撒並開出故事之花的地方。沿著這些故事探尋，就能夠遇見“文化共鳴水晶”。  文化共鳴水晶原名為“貞蘭閣”。作為1943年建於日本殖民統治時期的建築物，採用日本居住風格建成。由於空間賦予的獨特魅力，成為多部電影、MV的拍攝地，韓國女歌手IU的歌曲《夜信》MV、韓國組合歌手樂童音樂家的歌曲《思春記》MV、韓國電影《與犯罪的戰爭：壞傢伙的全盛時代》和《將軍的兒子》等都曾在此拍攝。  走進與周邊的現代式住宅形成鮮明對比的“水晶”庭園，明媚的陽光與碧綠的樹木相映成趣。可以不必馬上走進建築物，在庭園裡透個氣也不錯。彷彿穿越到過去的時光旅行，靜謐的氛圍籠罩著周圍。  建築物內部劃分為1層和2層，以傳統茶館的方式經營。沿著安靜的走廊走著，就會看到設有坐式桌子的房間。透過窗紙裱糊的門，可以看到景色一片祥和。  從文化共鳴水晶出發，向釜山站方向步行20分鐘左右，就會見到“草梁1941”。草梁1941這個名字是將地區名稱與住宅建造年份結合在一起命名的名字。矗立於住宅前方庭園內的樹樁彷彿在為客人指路般，歡迎客人們的到來。掛在褪色屋簷下的風鈴在風兒的吹拂下發出“叮鈴鈴”的清脆聲音，撩撥客人的耳畔。  走進咖啡館內，彷彿置身於舊韓末的京城，古色古香的立式桌子與大大的窗戶相映成趣，盡情展現各自的風采。並且通過咖啡館各個角落佈置的新穎的小工藝品，也可以預猜到主人的品味。草梁1941店內開發出的各種牛奶菜單引人注目，裝在玻璃瓶中的香草牛奶、紅茶牛奶等十分小巧可愛。  在適合漫步的午後，如果您想在可以感受近代韻味的日式住宅中體驗感性的咖啡館之旅，為您推薦草梁1941和文化共鳴水晶。  </ITEMCNTNTS>  <PLACE>文化共鳴水晶、草梁1941</PLACE>  <SUBTITLE>在近代木造建築物中享受悠閒的草梁咖啡館之旅</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文化共鳴水晶 : 每天 09:00-18:00  草梁1941 週二~週日 11:00~19:00</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東區</GUGUN\_NM>  <ADDR1>文化共鳴水晶：釜山廣域市東區虹谷路75  草梁1941：釜山廣域市東區望陽路533-5</ADDR1>  <HOMEPAGE\_URL />  <TITLE>文化共鳴水晶、草梁1941</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4171115847\_thumbL</MAIN\_IMG\_THUMB>  <LAT>35.125793</LAT>  </item>  <item>  <MAIN\_TITLE>일광해수욕장</MAIN\_TITLE>  <LNG>129.2336</LNG>  <MIDDLE\_SIZE\_RM1>盲道磚、殘疾人停車場、殘疾人洗手間</MIDDLE\_SIZE\_RM1>  <UC\_SEQ>265</UC\_SEQ>  <USAGE\_AMOUNT>免費</USAGE\_AMOUNT>  <CNTCT\_TEL>+82-51-709-4000</CNTCT\_TEL>  <MAIN\_IMG\_NORMAL>/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43353231\_ttiel</MAIN\_IMG\_NORMAL>  <TRFC\_INFO>都市鐵路 2號線海雲台站 → 換乘1006、180路巴士 → 在日光海水浴場站下車  巴士 乘坐188、180、1006路巴士，在日光海水浴場站下車  居民區小巴士 乘坐機張郡2、機張郡8-1、機張郡9、機張郡3、機張郡8路居民區小巴士，在日光海水浴場入口站下車</TRFC\_INFO>  <HLDY\_INFO />  <ITEMCNTNTS>釜山市民喜愛的大海，日光海水浴場  歷史上被評為機張8景之一的美麗的日光海水浴場，相傳在過去沿著海岸線就有老松林，是從高麗時代開始到鄭夢周等人士遊覽的絕景之一。  日光海水浴場所在的日光面三聖裡的名字來源於三聖台。相傳三聖台起源於“井泊台”這一古語，“井”指的是藥泉井、而“泊”指的是船舶停靠的地方。如今，沙灘中間隆起的部分被稱為三聖台。  日光海水浴場是吳永壽於1953年發表的短篇小說《小漁村》的背景地，也是海邊漁村的象徵之地。 1965年，金洙容導演在此拍攝了電影《漁村》。小說《小漁村》中出生在海邊漁村的海女之女海順是主人公。這部小說以日本殖民統治時期為背景，描寫了無法承受苦難生活而離開大海後最終還是回到小漁村的女人的曲折人生。  村莊里依然保留著小說《小漁村》和電影《漁村》的足跡。自1995年開始發展成為海邊慶典。每年夏天舉行以作品為主題再加上場院劇演出的“小漁村場院劇節”。這是韓國唯一一個以海女為主題的海洋文化節。活動期間還可體驗韓國演歌演唱會、海女下海撿海物、機張傳統捕魚方式——圍網等活動。  與其他海水浴場相比，日光海水浴場的水深較淺、波濤較弱，因此深受帶著小朋友前來避暑的遊客的青睞。另外，這裡仍保留著涼床文化，因此可在沙灘舉行BBQ派對，別具特色。  但日光海水浴場獨有的魅力還要更上一層樓。僅次於海上運動熱門場所——松亭海水浴場的這一新海洋休閒運動場所備受人們的喜愛。這裡具備水上摩托艇、飛魚、香蕉船、尾波板、迪斯科快艇等各種娛樂項目，備受年輕避暑遊客的關注。  在這裡不僅可以領略釜山古老海邊村莊的風貌，還可以體驗嶄新的海洋休閒運動，也少不了釜山大海的舊貌和時尚感十足的日光海水浴場。作為釜山大海的過去和未來共存的空間，日光海水浴場的魅力不分季節，四季彰顯。  </ITEMCNTNTS>  <PLACE>日光海水浴場</PLACE>  <SUBTITLE>從時尚海上運動到古老風景</SUBTITLE>  <USAGE\_DAY />  <USAGE\_DAY\_WEEK\_AND\_TIME>開場期間：每年7月1日~8月31日  09:00-18:00（開場時可入海時間）</USAGE\_DAY\_WEEK\_AND\_TIME>  <GUGUN\_NM>機張郡</GUGUN\_NM>  <ADDR1>釜山廣域市機張郡日光面三聖3街17</ADDR1>  <HOMEPAGE\_URL />  <TITLE>日光海水浴場</TITLE>  <MAIN\_IMG\_THUMB>/uploadImgs/files/cntnts/20191225143353231\_thumbL</MAIN\_IMG\_THUMB>  <LAT>35.260025</LAT>  </item>  </items>  <numOfRows>10</numOfRows>  <pageNo>1</pageNo>  <totalCount>108</totalCount>  </body>  </response> |

**2. OpenAPI 에러 코드정리**

|  |  |  |
| --- | --- | --- |
| **에러코드** | **에러메시지** | **설명** |
| 00 | NORMAL\_CODE | 정상 |
| 01 | APPLICATION\_ERROR | 어플리케이션 에러 |
| 02 | DB\_ERROR | 데이터베이스 에러 |
| 03 | NODATA\_ERROR | 데이터없음 에러 |
| 04 | HTTP\_ERROR | HTTP 에러 |
| 05 | SERVICETIMEOUT\_ERROR | 서비스 연결실패 에러 |
| 10 | INVALID\_REQUEST\_PARAMETER\_ERROR | 잘못된 요청 파라메터 에러 |
| 11 | NO\_MANDATORY\_REQUEST\_PARAMETERS\_ERROR | 필수요청 파라메터가 없음 |
| 12 | NO\_OPENAPI\_SERVICE\_ERROR | 해당 오픈 API 서비스가 없거나 폐기됨 |
| 20 | SERVICE\_ACCESS\_DENIED\_ERROR | 서비스 접근거부 |
| 21 | TEMPORARILY\_DISABLE\_THE\_SERVICEKEY\_ERROR |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 키 |
| 22 | LIMITED\_NUMBER\_OF\_SERVICE\_REQUESTS\_EXCEEDS\_ERROR | 서비스 요청제한횟수 초과에러 |
| 30 | SERVICE\_KEY\_IS\_NOT\_REGISTERED\_ERROR |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키 |
| 31 | DEADLINE\_HAS\_EXPIRED\_ERROR | 기한만료된 서비스키 |
| 32 | UNREGISTERED\_IP\_ERROR | 등록되지 않은 IP |
| 33 | UNSIGNED\_CALL\_ERROR | 서명되지 않은 호출 |
| 99 | UNKNOWN\_ERROR | 기타에러 |